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會長團 전원 再選任…90년 定總서

힘찬 跳躍다짐 3월의 마지막 週末(31일)에 열린 90년도 정기총회에는 1천여명의 同門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崔主鎬회장을 비롯한 會長團 전원을 유임시키고 90년대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冠岳春秋

定期 總會 결산

90년도 定期總會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1천여명의 老壯青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가운데 總會와 리셉션이 있었으며 任員選擧도 있었다.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全員留任하게 되었다. 그동안 임원들의 勞苦에 대한 동창들의 감사와 계속적인 獻身을 기대한 때문이라고 하겠다. 會運營의 계속성을 위해서는 환영할만 하다.

崔主鎬會長은 古稀를 넘긴 高齡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년간 동창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하였으며 특히 母校圖書基金의 확충등 연구여건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모교의 도서관이 古舊書의 貯藏庫로 화한지 이미 오래이며 世界의 유수 대학의 수준에 못미치는 것은 다 아는 바이다. 大學의 존재가치는 敎育에도 있으나 硏究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서울大學校의 경우 연구가소홀히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연구여건의 향상을 위한 동창회의 활동은 기필코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崔主鎬회장의 노력으로 동창회관을 건립하였고, 동창회사무실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同窓會名簿를 再發刊하는등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在學生에게나 敎授들에게는 동창회의 존재의의를 크게 부각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89년 1년간의 母校支援事業費가 4백70만원에 불과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組織强化費用은 6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고 退職給與充當金轉入額이 2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非同窓會員인 三星그룹에서 湖巖生活館을 건립한 것이란든가 또 鮮京經營館을 건립해 준 것에 비하면 동창회의 參與는 비교적으로 컸다고 하기는 힘들다. 동창회는 그동안 장학금조성사업이나 大學發展基金造成에 협력해 왔으나 이것은 별로 可視的이지 못했다. 18만명의 동창회원들이 합심만 한다면 母校敷地內에 敎授 學生 同窓을 위한 건물도 지을수 있을 것이요 연구시설과 연구도서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第4期를 맡는 동창회임원진은 심기일전하여 동창회활동을 보다 活性化시켜야 하겠다.

同窓會가 자주 모이는 동창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全會員의 모임이 되기 위하여서는 舊態依然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요 나날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그동안 미루어온 地方組織의 활성화, 職場支部의 활동강화뿐만 아니라 海外支部의 조직도 확대하여야할 것이요, 동창들의 紐帶强化를 위한 제반사업을 보다 확충해야 하겠다. 同窓會報도 面數를 늘리고 다양한 소식을 보다 많이 싣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 發行部數도 늘려 거의 모든 동창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급망을 확장하여야 하겠다. 同窓會會報는 이제 廣告費로도 獨立採算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 있다.

1990년도의 동창회활동은 이제까지 손이 가지 못했던 사업을 집중적으로 支援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母校의 學生支援事業費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며 母校支援事業費도 늘려야 할것이요 支部支援事業費도 늘려야 하겠다. 그동안 동창회의 활동으로 一般會費納付實績이 1만2천명분으로 아주 좋아졌는데 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 職場支部의 會費 납입도 8백72명분으로 늘어났기는 하나 支部組織數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組織强化를 위한 적정한 資金配分이 요망된다.

18만명의 會員을 가진 동창회의 회비납부자가 1만5천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아직도 16만여명의 동창들이 參與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이 불참하는 절대다수의 동창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劃期的인 조치가 강구되기를 바란다.

90년도동창회활동의 새 出發을 축하하면서 同窓會의 보다 힘찬 발전을 기대한다.

同窓會 90년도 事業計劃 확정

총豫算 12억, 會費수입은 3억

組織강화·10億基金 조성에 역점

동창회 1990년도의 예산은 지난해의 6억2천여만원보다 거의 두배가까이 늘어난 총 12억2천여만원으로 짜여졌다.

이는 지난 3월17일열린 제108차 常任理事會에서 최종 확정된 것인데, 올해의 예산이 이같이 늘어난 것은 會員名簿의 발간에 따른 광고료와 명부판매대금으로 약 4억여원의 수입이 새로 발생한데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사업으로는 △會報발행 △會員名簿발간 △組織강화 △親睦事業 △母校및 支部지원 △제반회의 운영 △10억기금조성등이다.

올해의 사업은 특히 會報發行과 親睦事業 名簿발간에 중점이 두어졌다.

會報發行은 회원명부발간을 계기로 보다 많은 동문이 會報를 받아볼수 있도록 발행부수를 대폭 늘리기로 하여 전년보다 3천여만원이 증액된 1억4천여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리고 등산대회및 각종 축하행사 경조비등의 친목사업비가 4천8백만원, 會員名簿발간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또 회보보급 확대및 신규회원 발굴등 組織强化費가 7천5백만원으로증액되었고, 전 회원의 電算化 기금으로 1천8백만원이 준비되어있다.

그리고 支部支援事業費중 직장지부 간사장 및 간사 협의회 비용으로 4백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는 그동안 소원했던 직장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支部실무자급 모임을 갖기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외 定期總會 常任理事會 기타 회의비가 2천2백만원, 母校支援事業費가 전년보다 2백만원 증액된 8백만원으로 짜여졌다. 총예산규모에 비해 모교지원사업비중이낮은 것은 모교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학금과 교수연구비는 재단법인 冠岳會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동창회 예산에는 학생행사보조및 조경지원등 극히 실비조의 비용만 포함되어 있는 까닭으로 밝혀졌다.

한편 管理費부문에서는 긴축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퇴직금여충당금전입액 2천3백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어, 차년도에 약 6억원을 이월시키도록했다.

항목별 예산내역은 별표와 같다.

예산 내역

收入之部 (단위 : 원)

款	項	目	89년도豫算	90년도豫算
前年度移越			205,231,604	283,420,466
經常收入	特別會費	會長團	11,100,000	11,600,000
		理事	90,000,000	108,000,000
	分擔金	常任理事	3,100,000	3,100,000
	會費	入會金	5,500,000	5,500,000
		一般會費	120,000,000	160,000,000
經常外收入	會報廣告料		100,000,000	110,000,000
	名簿廣告料			210,000,000
	名簿			180,000,000
	收入利子		5,000,000	10,000,000
	贊助金		81,000,000	113,000,000
其他收入	假支給金		26,000	24,300,000
	附加稅還給金		1,436,976	1,377,640
合計			622,394,580	1,220,298,106

支出之部 (단위 : 원)

款	項	目	89년도豫算	90년도豫算
事業費	刊行物費	會報發行	115,714,886	141,880,000
	親睦事業	親睦事業	29,600,000	33,000,000
		慶吊金	15,000,000	15,000,000
	母校支援事業	學生支援	3,000,000	3,000,000
		母校支援	3,000,000	5,000,000
	支部支援事業	協議會	4,000,000	4,000,000
		支部支援費	3,000,000	3,000,000
	組織强化	組織强化	69,600,000	75,600,000
	會議	總會	9,000,000	9,000,000
		常任理事會	1,500,000	3,000,000
		其他會議	10,000,000	10,000,000
	電算化基金		10,000,000	18,000,000
	名簿發刊費		160,000,000	200,000,000
	基金造成費		1,000,000	3,000,000
	冠岳會基金轉出		5,500,000	5,500,000
管理費	人件費	給與	36,887,040	38,172,000
		賞與金	14,469,600	12,724,000
		福利厚生費		3,180,000
	旅費	交通費	2,500,000	4,500,000
		出張費	900,000	1,500,000
	事務費	通信費	3,900,000	4,700,000
		事務用品費	800,000	960,000
		備品費	2,000,000	3,000,000
		印刷物費	5,500,000	5,500,000
		圖書費	900,000	1,000,000
	保險料		800,000	1,300,000
	雜費		1,000,000	1,000,000
	退職給與充當金轉入額		9,644,141	23,542,907
次年度移越			103,178,913	590,239,199
合計			622,394,580	1,220,298,106

和合·結束 다짐한 90년 定總

3월31일 호텔롯데서 1천여 同門 참석 盛況

동창회는 지난 3월31일 1990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임기만료된 崔主鎬회장을 비롯한 부회장·감사 전원을 재선임했다.

이날 오후2시 호텔롯데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동문 약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는 또 1989년도의 동창회 사업및 결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모범지부로 선정된 6개 직장지부에 대해서도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재선임된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崔主鎬(農大·宇成그룹회장)

◆부회장

△李聖秀(師大·前國會議員) △金道昶(法大·辯護士) △河永基(文理大·第一生命保險社長) △金相慶(文理大·大韓商工會議所會長) △具平會(文理大·럭키금성상사會長) △白樂晥(醫大·仁濟大學校總長) △金在淳(商大·國會議長) △姜信浩(醫大·東亞製藥會長) △高在清(商大·前國會副議長) △李奭熙(法大·大宇그룹副會長) △金善弘(工大·起亞그룹會長) △趙南煜(法大·三扶土建社長) △張翼龍(工大·西光會長) △鄭宗澤(法大·國會議員) △李埈鎔(商大·大林産業副會長) △李台燮(工大·國會議員) △李洙彬(商大·三星生命保險社長) △朴容晟(商大·東洋麥酒副會長) △李鍾贊(行政大學院·國會議員) △鄭夢準(商大·現代重工業會長)

◆감사

△李弼善(商大·前第一銀行長) △嚴宗鎭(師大·前東洋相互信用金庫社長)

〈관련기사 7面〉

◇ 13대 회장으로 재선임된 崔主鎬회장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總會準備委구성

108차常任理事會

동창회는 지난 3월17일 제108차 常任理事會를 열고 89년도의 決算과 90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어 3월31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總會準備委員會」를 구성키로 하고 7인의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명단은 다음과같다.

△李聖秀(동창회상임부회장) △河永基(동창회부회장) △張翼龍(동창회부회장) △朴智洙(사대동창회장) △鄭佑賢(음대동창회장) △兪尙根(행정대학원동창회장) △李燦河(재단법인관악회감사).

또 이날 상임이사회석상에서 崔主鎬회장은 洪性也전가정대동창회장, 馬東一전약대동창회장에게 동창회장 재임시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각각 증정했다.

한편 총회준비위원들은 지난 3월27일 오후6시 30분 마포 가든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임기만료된 임원의 선임문제등 총회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藥大 새 會長에 韓倜承동문
캐나다支部長엔 安丙元 동창

醫大 등 3월중에 總會 잇따라 열려

▲醫大同窓會(회장 姜信浩)는 지난 3월9일 저녁 신라호텔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갖고 支會조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 사업계획과 금년도 예산 7천59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韓格高·金弘基·朱槿源 同門등 원로회원과 1백여 동문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날 姜信浩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여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會務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특히 원로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이끌어주고 조력해준데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다. 한편 李洸鎬모교학장과 韓鏞徵서울대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선배및 동문들이 모교발전을 위해 힘써준데 대해 항상 긍지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동창회가 모교발전의 견인차가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간 동창회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에 대한 감사패수여식이 있었는데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이정균·이영우·김진호·한만청·관악동작구지회·서울중앙병원지회·청주지회·제29회동기회.

▲藥大同窓會는 지난 3월13일 오후6시 麻浦동 창회관5층 冠岳홀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만료된 禹東一회장의 후임으로 韓명호동문(56년卒·삼보약국)을 선출했다.

회원 약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또 副會長및 각위원회의 委員長은 신임 韓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그리고 朴漢煜·尹相徹감사는 그대로 유임시키고 韓동문의 회장취임으로 공석이 된 감사 1인에는 여성계 대표로 朴漢日동문을 선임했다.

◇한명승 회장

韓명호신임회장은 인사를 통해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할줄 아는 기본바탕을 살려 동창회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韓회장은 56년약대를 졸업, 약대10회동기회장을 비롯 서울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약사공론주간 약업신문편집자문위원과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동구에서 삼보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이어 89년도의 결산과 4천2백여만원에 달하는 올해의 사업계획및 예산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표창및 기념패의 증정이 있었는데, 표창은 먼저 본회회장 명의로 金元寶동문을 비롯한 3명에게 수여되었으며, 金相祚동문을 비롯한 7명에게 약대동창회장의 표창패가 증정되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3명과 박사학위 취득자 5명에게는 축하기념패가 각각 수여되었다.

이자리에서는 또 모교에서 추천한 장학생 10명에게 1학기 장학금 1백50만원을 전달했으며, 同門 자녀로서 모교에입학한 4명의 학생에게도 축하기념품을 전달했다.

총회가 끝난후에는 조촐한 자축연을 갖고 선후배간 우의를 돈독히했다.

▲同窓會 캐나다支部는 지난 1월27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이국땅에서 모교 동문들간의 진한 정을 나누는 가운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한편 캐나다지부는 이날 1990년도 신임위원장(會長)으로 安丙元(50년 音大卒) 동문을 선출했다.

89년도 決算承認
冠岳會43차 理事會에서

동창회 장학법인인 재단법인 冠岳會는 지난 3월17일 오전8시 리베라호텔에서 제43차 理事會를 열고 임기만료된 白文基감사를 재선임하는한편 1989년도의 決算을 심의,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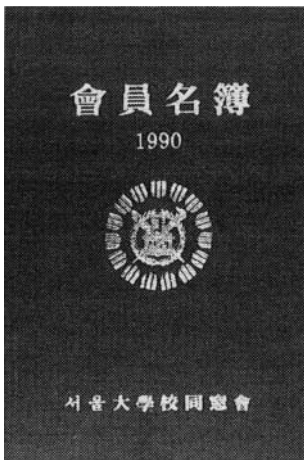
이날 승인된 결산서에 따르면 冠岳會의 총자산은 23억2천만원, 負債는 5억9천7백만원으로 자본총계는 17억2천3백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89년도의 매출收入은 임대료 8천8백50만원, 관리비 6천2백만원으로 총 1억5천50만원이다.

반면 지출면에서는 인건비 3천8백66만원, 상여금 9백50만원, 퇴직금 2백81만원, 복리후생비 4백95만원, 여비교통비 31만원, 도서 통신비 1백50만원, 수도광열비 2천4백13만원, 사무비 1백91만원, 소모품비 3백11만원, 세금과공과 1천3백13만원, 청소비 1백63만원, 보험료 2백만원, 수선비 6백82만원, 각가상각비 9천8백30만원, 목적사업비 2천2백15만원, 접대비 41만원, 지급수수료 7백78만원등 2억3천9백50만원으로 약8천8백96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영업외수익에서 찬조금 수입이자등으로 4천9백22만원이 발생, 약 3천9백73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낸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적자속에는 회관감가상각비로 9천8백3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는 약6천여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會員名簿 見本나와
5월 중순부터 配布 가능



會員名簿가 드디어 完成되어 지난 3월26일 見本 1백부가 나왔다. 본격 배포는 5월중순경에 가능할것 같다.

會員名簿는 그 부피가 방대(약6kg)하기 때문에 배포방법이 여러가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가격은 4만5천원선에서 결정될것 같다.

이 名簿에는 1895년 法官養成所 1회부터 1989년8월 졸업생까지 17만3천명이 年度別로 게재되었고, 索引도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가나다順으로 편집되었다. 또 모교및 동창회의 연혁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5·7판(전화번호부 크기)으로 총2천8백20여페이지에 이르는 이 방대한 名簿의 표지는 布크로스로 최고급 양장을 갖췄다.

協賛해 주신분

崔主鎬	宇成그룹 會長	미쉐린타이어 3조
		킹텍스복지 10벌
河永基	第一生命保險 社長	진주햄 20세트
金相廈	三養社 會長	삼양설탕 30캔
具平會	럭키金星商事 會長	금성냉장고 3대
姜信浩	東亞製藥 會長	'위하여'와인 10세트
		라미화장품 10세트
張翼龍	(株)西光 會長	쥬리아화장품 10세트
		쥬리아샴푸 5세트
		라꼬스떼 T셔츠 5점
朴容晟	東洋麥酒 副會長	OB씨그램진 240병
		디프로메트 12병
		토닉워터 480병
金善弘	起亞그룹 會長	삼천리자전거 2대
李奭熙	大宇그룹 副會長	피어리스화장품 5세트
李洙彬	三星生命保險 社長	삼성VTR 1대
鄭夢準	現代重工業 會長	현대무선전화기 3대
玄在賢	東洋그룹 會長	투유스페샬 초코렛 1,000개
李孝益	三益樂器 會長	三益엘로디언 10대
黃英奎	太平洋化學社長	아모레화장품 10세트
金孝圭	第一製糖 專務	제일제당종합선물세트 10개
李大遠	第一毛織 社長	갤럭시 紳士服 3벌
宋三錫	(株)모나미 社長	모나미수성볼펜 1,000자루
趙南煜	三扶土建社長	경주콩코드호텔 숙박권 2조
姜晋佑	롯데햄·우유(株) 社長	롯데햄 5세트
柳遠榮	韓國電子(株) 會長	전자악기 1대
申熙澈	金剛製靴 社長	금강신사화 5족
金基炳	롯데觀光 社長	설악산관광티켓 2人用 5조
崔鍾賢	鮮京그룹 會長	SKC비디오테이프 50개
玄明官	호텔新羅 代表理事	신라호텔숙식권 1조
韓勝熙	(株)삼나스포츠 社長	나이키잠바 10점
李憲祖	(株)金星社 社長	금성칼라TV 2대
姜晋求	三星電子(株) 會長	삼성오디오 1대
黃寅性	아시아나항공 會長	제주왕복항공권 2조
丁俊赫	(株)韓洲投資 代表理事	쎄라믹볼펜 700자루
金京熙	知識産業社 社長	강좌 중국사 3질

〈접수순〉

耳順同門테니스會
4월15일 競技가져

耳順同門 테니스클럽이 창립되어 제1회 대회를 오는 4월15일 관악캠퍼스 敎授코트에서 개최한다. 만 男子 60세, 女子 55세 이상의 테니스 同好人은 다수 참석하여 대회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日時 4월15일(日) 9시~17시(雨天시순연)

▲場所 冠岳캠퍼스 敎授코트

老益壯순회배(記名): 70세이상 4인복식경기

祖父-孫子대회도
4월29일오전9시

한편 孫子, 孫女, 外孫子 혹은 外孫女와 1組가 되어 老少가 함께하는 老童테니스대회(연령에 제한은 없음)도 4월29일 개최한다. 이 대회에도 많은 동문과 孫子 孫女등의 참가를 바란다고.

▲日時: 4월29일(日) 9시~13시

▲場所: 冠岳캠퍼스 敎授코트

※참고사항 ①참가비없음 ②연락처: 전화 547-5887(馬景錫)

참가상: 耳順同門마크와 이름이 들어간 유니폼(각자의 크기를 연락한분에 한함)

알림

同窓會 FAX 設置
(703-0755番)

同窓會 업무의 보다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지난 3월23일, 사무처에 FAX를 설치하였사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FAX번호: 703-0755

서울大學校 同窓會

3·31 정기총회 詳報

12년만에 名簿나와 祝祭분위기

지난 3월31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90년도 동창회정기총회는 成年을 넘긴 동창회의 결속과 동문들의 깊은 관심도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총회는 편리한 교통과 온화한 날씨 덕택이었는지 약 1천여명의 동문이 運集, 주말의 도심에 온통 서울大人의 열기가 가득찼다.

동창회 吳寅泳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는 오후 2시에 그 막을 올려 국민의례, 회장인사, 국회의장 金在淳동문의 축사, 母校총장축사, 신입회원환영사, 신입회원대표의 답사, 표창패수여 그리고 경과보고및 부의안건심의, 임원선출의 순서로 진행됐다.

崔主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에서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회원명부 발간과 10억기금 조성중 회원명부는 지난번 총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이번 총회에 선물 보여드리게 된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한후 『오늘 총회는 89년도의 결산승인과 임원선임등 두가지 주요 안건이 상정돼있는만큼 모쪼록 심사숙고하신후 동창회발전을 위해 좋은 인물을 선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그간 부족한 본인을 마다하지 않고 큰 잘못없이 임기를 마칠수있도록 도와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날 특별히 자리를 함께해준 국회의장 金在淳(52년 商大卒) 동문은 『세계사의 흐름에 있어 서울大人이 주역이 되어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재삼 서울大人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趙完圭총장은 이어진 축사를 통해 『1990년은 2천년대를 준비하는 元年으로서 앞으로의 10년에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다』고 전제한뒤 『2천년대에 母校가 조국발전의 구심점이 된다는 소명의식을 버릴수 없는만큼 동문들께서도 아낌없는 협조 있으시길 소망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총회는 올해 새로 동창회원이 된 6천4백20명의 신입회원들중 대표들을 초청, 선후배간에 인사를 나누는등 시종 활기넘치는 분위기속에 진행됐는데 특히 일부 신입회원들은 자청해 나서 접수와 행사진행을 맡아보는등 예년에 볼수 없는 참여정신을 발휘하기도.

申泰煥 前모교총장은 이날 신입회원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사회 발전과정에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이는 우리 서울대학교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라며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태반이 모교출신인 까닭에 우리 모두는 불진적인 성공이 전에 인간적인 면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여기에 최고의 엘리트로서 지녀야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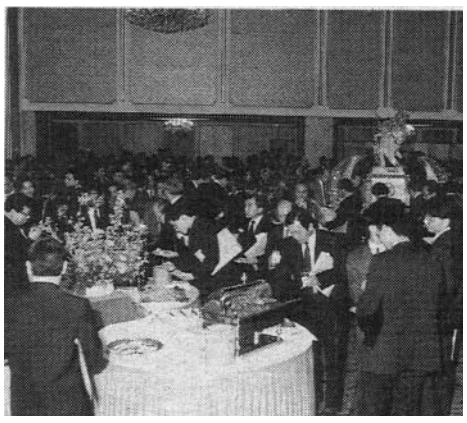
신입회원대표로 나온 陳炳準(法大卒·동창회장상 수상) 동문은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신입회원을 대표해 답사를 올리게된 것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신입회원들은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한 미래를 보며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조국의건설에 주역이 될것』을 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실시된 表彰式에서는 포항공과대학支部의 張水榮간사장이 우수지부 간사장표창을수상하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공주교육대학·호남정유㈜·㈜경방·경남기업㈜지부가 지부조직강화및 동문간의 친목향상등 동창회발전에 물심양면의 협조를 아끼지 않은 공로로 각각 표창패를 받았다.

附議및 報告에서는 먼저 李聖秀상임부회장이 『동창회의 경과보고사항이 많으나 이자리에서는 주요 안건 두가지만 보고드린다』며 『동창회는 지난번 총회때 약속한 회원명부의 출간을 위해 명부편찬위원회를 구성, 1년3개월만에 국배판 2천9백여페이지에 이르는 명부를 완성했는데 여기에는 17만3천1백49명에 이르는 동문들이 수록돼 있다』고 전했다.

李상임부회장은 이어 『그간 동문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우선 초판으로 1만부를 발행할계획인데 이번 명부는 5월초부터 본격 배포예정이며 가격은 4만5천원선으로 예정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동창회 10억기금마련에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억기금 조성에 관해서는 『89년12월30일 현재 3억4천만원의 잉여금을 적립했는데 차기 총회에서는 10억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게될 것이며 그내역은 명부판매 2만부 3억4천5백만원, 광고 순이익 2천만원, 협찬금예상 1억4천만원, 90년도 동창회 예산절감 1억원등을 통해 무난히 달성될것』이라고 밝혔다.

7人銓衡委 구성 任員선출 決算報告 만장일치로 승인



◇총회후에 가진 여흥은 시종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어 吳寅泳사무처장으로부터 89년도 동창회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嚴宗鎭감사의 감사보고가 이어졌다. 곧바로 李聖秀상임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하여 질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참석동문의 만장일치가결로 결산보고 접수를 정식 선포했다.

이어 임원선출에서는 金道昶대학원동창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했다. 임원선임 방법에 대해서 金秉權동문(經大院)이 동의한 7人 銓衡委員을 뽑아 그 전형위원회로 하여금 선임하자는 안이 받아들여져 7人 전형위원을 선임한 결과 權純泰(64년法大卒)·李廉河(67년經大院卒)·韓鏞徹(56년醫大卒)·朴智洙(50년師大卒)·張寶龍(58년工大卒)·河永基(48년文理大卒)·李聖秀(52년師大卒) 동문이 선임돼 속의한 결과 崔主鎬회장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연임할 것을 결의, 참석회원 전원이 박수로써 만장일치 가결했다. 한편 부회장단의 선임은 회장에 일임키로 하고 감사 2인은 그대로 유임시켰다. 이어 부회장 선임을 일임받은 崔회장이 전임 부회장단을 그대로 유임할 것을 건의, 참석회원 전원의 박수로써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優秀지부 幹事長 表彰 격려

VTR등 景品 3백여점 여흥분위기 돋구어

新入會員 입회, 열열히 歡迎

이날 서울대학교 동창회 제13대 회장으로 재선출된 崔主鎬회장은 『올해로 본인의 나이 喜壽를 넘긴 터라 이제 좀 쉬면서 후배들의 활동을 뒤에서 돕고 싶었으나 이렇게 중임을 다시 맡았으니 마지막 남은 열정을 동창회에 쏟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崔회장은 『앞서 여러분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모교 동문들의 역할이 중차대한 것이 현실이니만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동문이 되자』면서 『앞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동창회가 합일이 많고, 보다 내실을 기하는 동창회가 될것』을 다짐했다.

이날의 총회는 임원선출을 끝으로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곧이어 칵테일파티를 겸한 여흥에 들어갔다.

시종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된 여흥순서에는 여러 동문들의 노래와 특별기념품 추첨 등으로 시간가는줄 모르는 가운데 이어졌다.

특별기념품은 崔主鎬회장이 기증한 양록지·타이어 세트를 비롯, VTR·칼라TV·냉장고·전자올겐등 각계의 동문들로부터 답지한 35품목 약3백여점(4면 협찬품 참조)에 달했다.

同窓會 決算내역

收入之部 (단위 : 원)

款	項	目	89년도豫算	實績
前年度移越			205,231,604	283,420,466
經常收入	特別會費	會長團	11,100,000	10,000,000
		理事	90,000,000	78,400,000
	分擔金	常任理事	3,100,000	2,500,000
	會費	入會金	5,500,000	3,128,000
		一般會費	120,000,000	130,374,002
經常外收入	會報廣告料		100,000,000	102,415,000
	名簿廣告料			20,650,000
	受入利子		5,000,000	12,506,997
	贊助金		81,000,000	113,328,900
	雜收入			28,275
其他收入	假支給金		26,000	26,000
	附加稅還給金		1,436,976	1,436,976
合計			622,394,580	758,214,616

支出之部 (단위 : 원)

款	項	目	89년도豫算	實績
事業費	刊行物費	會報發行	115,714,886	111,698,566
	親睦事業	親睦事業	29,600,000	14,124,320
		慶弔金	15,000,000	7,980,000
	母校	學生支援	3,000,000	2,006,000
	支援事業	母校支援	3,000,000	2,700,000
	支部	協議會	4,000,000	
	支援事業	支部支援費	3,000,000	577,800
	組織强化	組織强化	69,600,000	63,038,148
	會議	總會	9,000,000	3,684,217
		常任理事會	1,500,000	1,013,154
		其他會議	10,000,000	820,213
	電算化基金		10,000,000	7,181,000
	名簿發刊費		160,000,000	74,817,462
	基金造成		1,000,000	
	冠岳會基金轉出		5,500,000	3,128,000
管理費	人件費	給與	36,887,040	38,120,320
		賞與金	14,469,600	11,547,930
	旅費	交通費	2,500,000	2,501,300
		出張費	900,000	266,500
	事務費	通信費	3,900,000	3,049,980
		事務用品費	800,000	694,510
		備品費	2,000,000	391,000
		印刷物費	5,500,000	1,146,500
		圖書費	900,000	303,700
	保險料		800,000	1,216,760
	維費		1,000,000	873,680
	雜損失			100,006
	退職給與充當金轉入額		9,644,141	23,542,907
次年度移越			103,178,913	96,807,201
合計			622,394,580	473,331,174

서울大學校의 母校

師範大學

—韓基彦

〈49년 師大卒·前 母校교수〉

㉒

官立 漢城師範學校가 근원

民族교육의 搖籃으로 우뚝

사범대학의 뿌리는 1895년에 설립된 官立漢城師範學校에 있다. 그리고 가까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8·15당시 전문학교였던 京城師範學校와 京城女子師範學校가 이듬해 國立서울大學校의 창설과 함께 합쳐져서 오늘의 「師範大學」으로서 자라잡게 된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남녀공학 대학의 효시이거니와, 그중에서도 사범대학의 경우는 남녀 학생수가 거의 비슷하여 가장 모범적인 「남녀공학 대학」임을 과시하였다.

이제 간단하나마 官立漢城師範學校(1895)로부터 마침내 현 서울대학교 師範大學에 이르기까지의 學統의 연면성을 밝혀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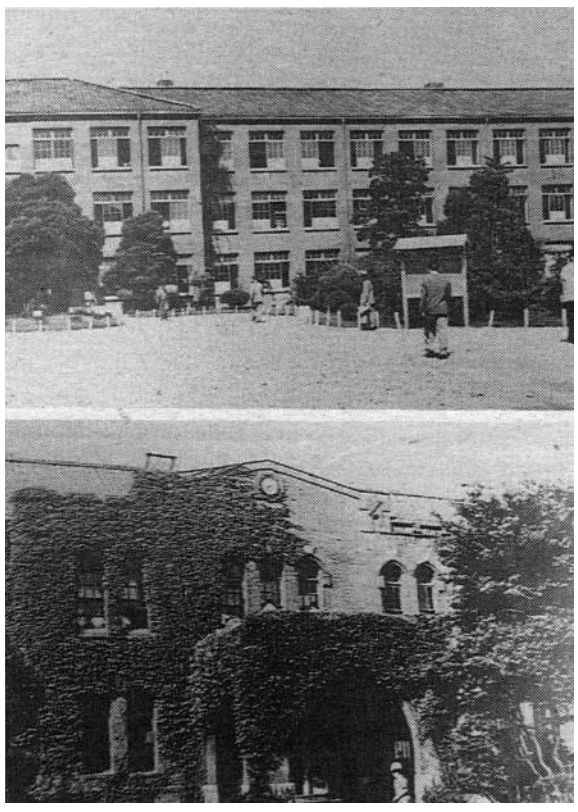
「관립한성사범학교는 당시 高宗이 발포한 『敎育詔書』로도 알수 있듯이 교육을 통한 국가 중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서 유능한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本科(2년)와 速成科(6개월)를 두었다. 그 후 1906년 師範學校令 발포와 더불어 그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즉 本科는 3년제로 되었고, 수업년한을 각각 1년 이내로 하는 예과, 속성과및 강습과를 두었다. 그러던 것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더불어 1911년 관립한성사범학교는 폐지되고, 官立京城高等普通學校(현 경기고등학교)에 새로이 설치된 師範科및 臨時敎員養成所로 계승되었다. 그리고 다시금 1921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설치된 「官立京城師範學校」가 이를 승계하였다. 한편, 京城女子師範學校는 1935년에 설치되었거니와 그 연원은 1914년3월 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현 경기여자고등학교)에 師範科를 둔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전문학교로 승격된 것은 1943년의 일이다.

이렇듯 오늘의 「사범대학」은 그간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오늘의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가 9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으로도 일컬어지듯이, 이제 오는 1995년에는 1백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 사범대학의 역사를 『民主敎育의 搖籃-서울大學校師範大學三十年史(1945-1974)』로 정리한바 있다.

현재 사범대학은, 교육학과를 비롯하여,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로 구성되어있다. 이밖에 체육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 교육행정연수원 및 교육연구소가 있다.

그런데 오늘의 사범대학을 말하는데 있어서는 자연 초대학장이셨던 張利郁박사(1895-1983)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민주교육이 무엇이며, 남녀공학이 어떠하여야 하는가등 많은 가르침을 남기신 분이시다. 나는 다음과 같이 나의 은사에 대하여 묘사한 바 있다.

『本校 初代學長으로는 해방직후 京城師範學校 교장으로 일해온 張利郁교수가 취임하였다. 그는 세계교육의 메카로 일컬어져 온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 출신으로 敎育學 전공자이며 宣川에서 중학교장으로서의 경력을 쌓은바 있고, 興士團 理事長으로 민족주의교육사상가로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진력해온, 당시에 있어 新進氣銳의 人士였었다. 그는 民主主義가 무엇이며 民主敎育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당시 大講堂에서 학생들을 모아자주 열었던 학생집회에서 그 스스로의 講說과 행동거지로써 그 眞意와 아울러 模範을 보여주었다. 특히 좌익학생들의 심한 야유와 박수의 소음에도 굽히지 않고 『이거 보시오…』하며 平安道사투리가 약간 섞이면서 美國風이 보이는 말씨로 한결 聲調를 높여 民主主義가 무엇인가를 학생들에게 타일렀던 당시의 모습이 지금껏 생생하기만 하다(民主敎育의 搖籃, 33)』고 하였거니와, 이제는 故人이 된 나의 친구 柳炯鎭박사 역시 은사를 기리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천부적인 교육자인 張박사님의 강의는 성실성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젊은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힘이 컸다. 虛飾과 꾸밈이 없는 것은 그의 성품 그대로였으나, 오랜 外遊에서 몸에 배인 西歐風의 세련미와 抑揚은 그의 강의에 다리들과 力動性을 부여하였다』고 하면서, 또 이어서 말하기를, 『순수한 平安道사투리로 유머를 섞어가며, 또 풍부한 實例를 들어가면서 강조점에 이르러 송고하고도 원대한 이상을 품으라고 하면서, 『모든 구체적 事物과 또 현실적인 사태를 초월해서, 언제 또 어디서라도 변하지 않는 즉 영원성있고 또 보편성있는 가치를 포함한 어떤 우주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존재를 불러서 道라 理라 神이라 혹은 말씀이라고 한다. 우리의 自我를 무한히 또 부단히 확대성장시켜서 이렇게 包括性있는 존재와 더불어 결국 融合一致되기 위해서는 제도도 물론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써 숭고한 목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인적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의 妙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인재가 필요하며 인물이 요구되며 올바른 지도력이 중요시되고 또한 人和에 의한 전체적 협동태세가 요청된다. 남의 스승이 될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의 品格과 지도력을 구비해야 한다. 물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正道가 있을 것이며 제일차적 길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니 또 그것을 보완하는 여러가지 눈에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 외적 방법과 내적 방법등 여러가지 종합적이며, 통일되고 여유있는 인격의 양성이 요청되는것이다. 浩然之氣의 양성이 그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外向的으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은 일방적이며 편협한 성격에 의하여 오히려 거칠기도 하며 서로 불화하기가 일쑤인즉, 사람은 어리석기도하여야 하며 바보같을 때도 있어야 할 것이다. 總和와 올바른 길의 지도력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다.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인재양성을 위한 기관으로서 교육사업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師範敎育에 치중하였던 것이다. (「民主敎育의 搖籃」, 24)』라고 사범교육의 중요성, 사대교육의 基調가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들어 보이고도 있다.



◇前師大 용두동 캠퍼스(上)와 乙支路6가의 師大부속국민학교(下) 건물.

실은 이글은 사대교수의 친목단체인 「明食會」에 관한 글의 서두인데, 훈훈하고 人間味 넘치는 분위기는 사대교수회의 전통이 되어있다. 용두동 교수휴게실의 좋은 분위기가 지금도 11동 3층에 있는 「교수합동연구실」에 이어지고 있다. 「교육의 총본산」을 구가하는 사대에는 이러한 몇 가지 자랑스러운 傳統이 있어 오늘도 변함없이 교육계의 지도자되는 人材培養에 힘쓰고 있다.

그는 동시에 좋은 의미의 보수주의자인 한편 과감한 진보주의자이며, 또 인문주의자인 동시에 과학적인 탐구자적 측면을 고루 갖추고 있는 이나라의 위대한 敎師이다(上揭書, 558)』라고 했다.

초대학장 張利郁박사의 재임기간은 결코 긴 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남긴 교육자적 영향력은 크기만 하다. 그까닭은 초기 졸업생들을 통하여 사대후배들에게 꾸준히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리라.

한편, 사대 초창기부터 교수로서, 또한 초기 부학장으로서 오늘의 사범대학의 기초를 다져놓으신 鶴峴 金桂淑박사(1905-1989)는, 짧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사범대학의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면 人和가 있어야 하며 協同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또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하니, 그것은 곧 師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師範을 위한 교육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東西洋을 막론하고 사범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을 세우고 인재 양성에 주력함으로써 민족이나 국가발전의 基幹을 확립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물론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써 숭고한 목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인적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의 妙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인재가 필요하며 인물이 요구되며 올바른 지도력이 중요시되고 또한 人和에 의한 전체적 협동태세가 요청된다. 남의 스승이 될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의 品格과 지도력을 구비해야 한다. 물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正道가 있을 것이며 제일차적 길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니 또 그것을 보완하는 여러가지 눈에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 외적 방법과 내적 방법등 여러가지 종합적이며, 통일되고 여유있는 인격의 양성이 요청되는것이다. 浩然之氣의 양성이 그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外向的으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은 일방적이며 편협한 성격에 의하여 오히려 거칠기도 하며 서로 불화하기가 일쑤인즉, 사람은 어리석기도하여야 하며 바보같을 때도 있어야 할 것이다. 總和와 올바른 길의 지도력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다.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인재양성을 위한 기관으로서 교육사업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師範敎育에 치중하였던 것이다. (「民主敎育의 搖籃」, 24 7)』라고 사범교육의 중요성, 사대교육의 基調가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들어 보이고도 있다.

실은 이글은 사대교수의 친목단체인 「明食會」에 관한 글의 서두인데, 훈훈하고 人間味 넘치는 분위기는 사대교수회의 전통이 되어있다. 용두동 교수휴게실의 좋은 분위기가 지금도 11동 3층에 있는 「교수합동연구실」에 이어지고 있다. 「교육의 총본산」을 구가하는 사대에는 이러한 몇 가지 자랑스러운 傳統이 있어 오늘도 변함없이 교육계의 지도자되는 人材培養에 힘쓰고 있다.

× × ×

새 內閣에 바란다

教育·文化

문화부에 翻譯科 新設 고려해 봄직

黃燦鎬 〈49年 文理大卒·母校 명예교수〉

內閣이 구성될 때마다 그 입명권자인 대통령이 적재를 물색하느라고 천신만고하는것으로 보아 약간의 정치적인 안배는 있을주 알다 치더라도 최고의 엘리트들이 선택되는 것은 틀림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엘리트들에게 전문적인 충고나 조언을 할 여지가 있겠느냐만는 다만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싶은가 하는 소망을 말하고 싶어 몇 말씀 적기로 한다.

첫째, 이웃나라 日本에서는 전 내각, 현 내각이 리크루트사건에 휘말리어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렇게 권력과 재력이 결탁하여 타락하는 사례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인류사회가 존재하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나라가 그 예외일 수는 없다. 이미 노출된 것도 그렇거니와 그보다 몇백배더 큰 노출되지 않은것까지 합치면 리크루트사건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일전 홍콩 어떤 신문에『한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타락부터 배워야 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화제거리가 되었지만 명예훼손죄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없으리만큼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닌성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관리들의 청렴성이라고 생각한다.

양성에 중점을 두는 정책에도 전적인 찬의를 표한다. 그러나 한가지만 제언하고싶은 것이 있다.

적어도 필자의 세대까지는 우리들의 행동을 규범하는 덕목이 있었다. 충효다 삼강오륜이다 하는 유교윤리가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어 우리를 규율지어 주었다. 그러나 요사이 젊은 사람들에게 과연 이 충효가 생리화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학교에서 대학까지 일관해서 관철되는 덕목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것을 질서의식이라고 보고싶다. 질서의식이란 줄을 서는 질서에서부터 대인관계, 정치질서, 도덕질서까지 극히 넓은 범위에 작용하는 의식이다. 우리가 요사이 그렇게도 맹렬히 부르짖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이 질서의식부터 먼저 생리화되어야 한다. 잡다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큰 힘이 바로 이 준법정신과 몸에 배어있는 질서의식이라는 것은 미국에 가보면 금시 감으로 잡을 수 있다.

셋째, 해방직후 우리 문교부에는 「번역과」라는 기구가 있었다. 수지타산때문에 출간하지않는 양서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출판하는 일을 맡는 부서였다. 이「번역과」가 문화부에 부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단 이 번역은 우리말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經濟

對外 경쟁력 基本은 교육의 質向上

林元澤 〈47年 文理大卒·母校 명예교수〉

요즘 우리는 커다란 전환기에 살고 있다. 우선 세계가 일대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世界史에 있어서의 近代史란, 白人優位의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白人 특히 앵글로색슨에 의한 非白人에 대한 지배의 역사였다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2차대전후 약 반세기에 걸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던 자본주의의 對 사회주의의 레이스에서도 동유럽의 전면적인 경제파탄과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오늘날 사회주의의 존재이유는「완전히 다라고해도 괜찮으리만큼 상실되고 말았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금 일대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通論이 되고 있다. 경제위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기후퇴, 불가불안, 제조업위축, 부동산투기 그리고 수출부진에 의한 무역수지적자 사실 이모두가 만만치 않은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진짜 심각성은 이 모두가 一過性이 아니고 구조적 요인에 연유돼 있다. 그러면 그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 철학자 헤겔은『世界史는 世界法廷』이라고 말하고 있다. 白人優位도, 美國의 세계지배도, 白人과 美國이 오류를 범하면 세계사는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그들을 쇠퇴시키고 만다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눈앞에 보고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들이 무슨 오류를 범했다는 말인가. 세계사는 국가들을 주체로 하는 경쟁과정인데도 불구하고—이를 경제면에서 볼때에는—대외경쟁에서 이겨야만 국민경제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경쟁력 배양의 방법에 있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대외경쟁력, 특히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술혁신을위해서는 학문의 질적 향상이 필수조건이다.

여기서 오류를 범했기때문에 美國은「넘버원」의 자리를 日本에게 넘겨주게되었고 또 사회주의도 자본주의에게 패배하고 만 것이다. 美國人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컬브레이스는『경제발전의 필수조건으로서의 문화발전 특히 教育 (cultural development, more specifically education, as a prior requirement in economic development)이라고 했고, 1987년1월19일자 U.S. World Report 誌는, 美國이「두뇌경쟁」(Brain battle) 에서 日本에 졌다고 말하고 있으며, 同年9월21자 TIME에는 美國교육이「저질교육」(declining quality of schooling)이며, 「교육의 질적 향상이 미국의 국제경쟁력 회복의 열쇠」(improvement in education as key to restoring U.S. industry's ability to match foreign competition)라고 하고 있다. 즉 저질교육·저질학문이 기술경쟁·품질경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임금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데 있으며, 위기탈출의 오직 한 방법은 가격경쟁력을 품질경쟁력으로 대체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할 專用·한자폐기에 의한 저질교육·저질학문이 자생적인 기술발전을 성취할 수 없도록 실로 놀라운 일이지만 해방 직후부터 공고한 구조적장치가 되고 있다(?). 매스컴도『과감한 기술투자를 해야 한다』고는 말하고 있지만『한글專用에 의한 저질교육·학문 압살을 지양하라』는 주장은 단한번도 나온 일이 없다.

이번의 改閣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대책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내외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기본이 되는 교육·학문의 질적 향상인데도 불구하고, 內閣은 시책을 펴나감에 있어 각별히 유념하기를 바란다.

政治

분배정의 통한 民主化구현 留念킬

車基璧 〈50年 文理大卒·成大 명예교수〉

지난 2월 3黨統合으로 巨大與黨이 갑작스레 출현했을 때 예상치 못하던 일이라 선뜻 可否判斷이 서지않아 찬반표명은 뒤로 미룬채 우선 좀 두고 보기로 한 이들이적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진다. 巨大與黨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與小野大 정국이 끝장이 난데 대한 아쉬움이 엇갈렸으리라고 짐작되기 때문이다.

與小野大의 4黨分占體制아래서 답리답략에 사로잡힌野3黨이 협조의 한계를 드러내곤 하는데 대한 역겨움의 반작용으로서 차라리 巨大與黨 출범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은 반면에 그래도 與小野大에 몰려 더디나마 개혁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던데다 與野간에 점차 타협과 조정의 정치문화가 이땅에서도 자리를 잡아가는듯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그리고 결국 정국이 政經癒着으로 낙착되어 애써 진행되던 민주화와 민족통일이 후퇴하거나 지연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불행히도 그같은 아쉬움과 우려가 단순한 미련이나 杞憂만은 아니었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國會國防委員會에서의 날치기 통과,「3·17개각」이 있기가 무섭게 유보된 금융실명제실시, 지방의회선거 마저 조기실시를 꺼리는 것 같은 눈치, 거기에다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國會法改正을 꾀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등을 범했다는 것이다. 대외경쟁력, 특히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술혁신을위해서는 학문의 질적 향상이 필수조건이다.

여기서 오류를 범했기때문에 美國은「넘버원」의 자리를 日本에게 넘겨주게되었고 또 사회주의도 자본주의에게 패배하고 만 것이다. 美國人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컬브레이스는『경제발전의 필수조건으로서의 문화발전 특히 教育 (cultural development, more specifically education, as a prior requirement in economic development)이라고 했고, 1987년1월19일자 U.S. World Report 誌는, 美國이「두뇌경쟁」(Brain battle) 에서 日本에 졌다고 말하고 있으며, 同年9월21자 TIME에는 美國교육이「저질교육」(declining quality of schooling)이며, 「교육의 질적 향상이 미국의 국제경쟁력 회복의 열쇠」(improvement in education as key to restoring U.S. industry's ability to match foreign competition)라고 하고 있다. 즉 저질교육·저질학문이 기술경쟁·품질경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임금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데 있으며, 위기탈출의 오직 한 방법은 가격경쟁력을 품질경쟁력으로 대체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할 專用·한자폐기에 의한 저질교육·저질학문이 자생적인 기술발전을 성취할 수 없도록 실로 놀라운 일이지만 해방 직후부터 공고한 구조적장치가 되고 있다(?). 매스컴도『과감한 기술투자를 해야 한다』고는 말하고 있지만『한글專用에 의한 저질교육·학문 압살을 지양하라』는 주장은 단한번도 나온 일이 없다.

이번의 改閣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대책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내외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기본이 되는 교육·학문의 질적 향상인데도 불구하고, 內閣은 시책을 펴나감에 있어 각별히 유념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가 그 예외일 수는 없다. 이미 노출된 것도 그렇거니와 그보다 몇백배더 큰 노출되지 않은것까지 합치면 리크루트사건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일전 홍콩 어떤 신문에『한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타락부터 배워야 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화제거리가 되었지만 명예훼손죄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없으리만큼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닌성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관리들의 청렴성이라고 생각한다.

양성에 중점을 두는 정책에도 전적인 찬의를 표한다. 그러나 한가지만 제언하고싶은 것이 있다.

적어도 필자의 세대까지는 우리들의 행동을 규범하는 덕목이 있었다. 충효다 삼강오륜이다 하는 유교윤리가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어 우리를 규율지어 주었다. 그러나 요사이 젊은 사람들에게 과연 이 충효가 생리화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학교에서 대학까지 일관해서 관철되는 덕목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것을 질서의식이라고 보고싶다. 질서의식이란 줄을 서는 질서에서부터 대인관계, 정치질서, 도덕질서까지 극히 넓은 범위에 작용하는 의식이다. 우리가 요사이 그렇게도 맹렬히 부르짖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이 질서의식부터 먼저 생리화되어야 한다. 잡다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큰 힘이 바로 이 준법정신과 몸에 배어있는 질서의식이라는 것은 미국에 가보면 금시 감으로 잡을 수 있다.

셋째, 해방직후 우리 문교부에는「번역과」라는 기구가 있었다. 수지타산때문에 출간하지않는 양서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출판하는 일을 맡는 부서였다. 이「번역과」가 문화부에 부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단 이 번역은 우리말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停年퇴임 교수의 한마디

반평생을 母校강단에 바쳐온 열분의 교수가 지난 2월28일 정년퇴임했다. 學問연구와 後學육성에 전념해온 老敎授들의 勞苦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분들의 献身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本欄을 통해 한마디의 말씀을 받아 싣는다.

愼翼晟 교수 〈人文大 言語學〉

『33년이란 긴 세월을 제대로 업적도 못남겨 후진에게 미안 하지만 젊고 유능한 후진에 거는 기대로 흡가분하기도 합니다』라며 책꾸러미가 책상을 가득 메운 연구실에서 愼翼晟 교수는 소탈하게 웃으며 퇴임 소감을 밝힌다. 愼교수는 경남거창 출신으로 52년 모교언어학과를 졸업, 57년 시간강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後學양성에 반평생을 바쳤다. 저서로는 〈어휘구조 의미론〉, 〈인구어 비교언어학〉 등이 있다.

후학들에게 들려주고픈말을 묻자 『학창시절에 기초를 튼튼히 하여 학자가 될수있는 소양을 길러야 한다』면서 퇴임후에는 건강유지에 신경을 쓰면서 그동안 읽고 싶었던 문학서적을 읽고, 시간이 허락 할때까지 언어학 연구에 임하겠다고.

金正洙교수 〈自然大 數學〉

『섭섭하긴 하지만 당분간은 강의를 계속하며 젊은이들과 접촉할테니 아주 그만두는 것은 아니죠』라고 퇴임의 변을 대신하는 金正洙교수는 1949년 모교 수학과를 졸업, 부산대학교를 거쳐 67년 모교 응용수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20여년간 우리나라 수학발전에 기여한 해석학 분야의 선구자. 『지금까지는 수학이 너무 고립돼 있었는데 이제는 타분야와 연계해서 실제 산업기술에 응용되도록 힘써야 합니다』라며 국내 수학의나아갈 바를 밝히는 金교수는 『이를 위해서 국제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대규모의 수학연구소를 세우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난초재배에 특히 관심이 많으며 과묵·진실하다는 주위評.

朴乙龍교수 〈自然大 數學〉

『강의를 시작한 게엊그제 같은데 40년이란 세월이 너무빨리 흐른 것 같다』며 아쉬움이 깃든 퇴임소감을 밝히는 朴乙龍교수는 『항상 우수한 학생, 동료들과 생활을 해서인지 큰 어려움은 없었고 늘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재직기간을 회고한다. 1949년부터 모교에 재직해온 朴교수는 대한수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대한수학회가 국제수학단체에 가입할 수 있게끔 하는 등 국내 수학발전에 많은 공로를 세웠다.

여가시간에 양궁과 그림을 즐겨 한다는 朴교수의 솜씨는 이미 수준급이라는 게 주위의 評.

『수학도의 생명은 중명』이라고 강조하는 朴교수는 퇴임후에도 강의를 계속하며 고전기하학에 대한 책을 집필해 보고싶다고.

尹張燮 교수 〈工大 建築學〉

『공자께서 耳順했다는 나이육십이 다돼서야 '건축'이라는 삶의 터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라고 퇴임소감을 밝히는 尹張燮교수.

尹교수는 지난 56년 이후 30년 이상을 모교에 재직해 오면서 '한국적인 멋'을 지닌 건축문화의 특성을 강조해왔다. 주로 건축사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업적을 남겼으며 국회의사당과 종합전시장의 설계시공에 손을 대기도. 尹교수는 퇴임후에도 한국건축학의 발달에 一助하기를 바라면서 『일생을 통하여 늘 양보하는 생활과 겸손의 정신, 그리고 열린 마음과 태도를 신조로 삼아왔다』고 말한다. 尹교수는 건축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일보 저작상(74) 서울시문화상(83) 학술원상(89) 등을 수상했다.

朴旻鎬 교수 〈工大 電氣工學〉

『이자리를 나의 천직으로 여겨 재직하는 동안 세월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30여년을 보냈습니다』라며 세월이 덧없음을 아쉬워 하며 퇴임소감을 밝히는 朴旻鎬교수. 퇴임후에는 『건강이 허락한다면 기술응용분야에 투신,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朴교수는 47년 모교 전기과를 졸업, 57년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후 전공분야에 많은 공헌을 했다. 특히 朴교수는 전기부분에 전자를 응용한 전력 전자학을 국내 최초로 개강해 이부분의 선구자로 불리우며 그의 저서인 '전력전자공학'은 모교는 물론 타대학의 교재로 널리이용되고 있다.

'스승은 제2의 代父' 여야 한다는 朴교수는 등산을 즐기며 간간이 그림도 그린다고.

崔桂根 교수 〈工大 電子工學〉

『글쎄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사람 사는 일도 그렇게 변화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소감이랄건 없고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하는 崔桂根교수.

崔교수는 48년 모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49년부터 지금까지 40여년간을 오직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전력을 다해왔다. 현재학술원 정회원인 崔교수는 재직중 가장 보람있었던 일로 『학부시절 두드러진 두각을 보이지 못하던 학생들이 해외 유학 이후 큰 성과를 거두고 오는 것』이라면서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비춘다. 그는 또 『본교생들의 자질이 뛰어 난것은 사실이지만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眞善美를 고루 갖춘 인물이 되어줄것』을 당부한다.

崔 雄교수 〈工大 化學工學〉

『막상 퇴임이라지만 아쉬움같은 건 없어요. 나이가 들었으니 퇴임할 때 퇴임하고 훌륭한 후배들에게 자릴 물려주는게 당연하지요』

국립 서울대 2회 졸업, 부산 가교사시절에는 군복차림으로 시간강사를 맡는 등 화학공학과는 인연이 깊다는 崔雄교수, 공과대학校舍가 공릉동에 있던 시절에는 재직교수 수가 극히 부족한 터에 동료교수들마저 임시 출국하는 바람에 40여명 학생을 崔교수 혼자 전임강의한 적도 있었다고 회상한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려면 그 재료를 대주는 화학 공학과 같은 학문이꾸준히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崔교수는 통일이 되어 함흥의 어머님 묘소에 가보는 것이 꿈.

韓基彦 교수 〈師大 敎育學〉

『학창시절과 교수재직기간 반세기를 서울대학교에 몸담았던 것이 커다란 행복이었다』고 환하게 웃으며 퇴임 소감을 밝히는 韓基彦교수.

『그동안 사범대학에서 길러낸 제자들이 교육계에서 훌륭히 제몫을 하고 있는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는 말에서 교육자적인 면모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韓교수는 모교 사범대학·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52년 이래 모교에 봉직해온사범대 토박이.

韓교수는 새로운 한국 교육철학의 정립을 위해 '基礎主義—전통의 계승·개혁을 통한 인간창조의 논리'를 제창했고, 저서로는 「기초주의」「한국인의 교육철학」 등이 있다. 지난 10일에는 후학들로부터 퇴임기념논문집을 증정 받았다.

李誠載 교수 〈音大 作曲〉

『정년퇴임이란 허심탄회하게 지난 날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음악 교육자로서의 정년을 뜻할지는 모르나 작곡가로서는 이제부터가 새로운 도약기인 셈이죠』라며 퇴임소감을 밝히는 李誠載교수는 48년 모교 예술대학 음악부를 졸업한 후, 서울예고 등에서 교직활동을 거쳐 56년 이래 모교 음악대교수로 재직해 왔다. 李교수는 58년 '창악회'의 설립에서부터 현재 아시아 작곡가연맹 한국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기까지 창작활동과 더불어 활발한 악단활동을 벌여 왔다.

『음악이란 修身의 한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드러남은 인격의 도야를 통해 저절로 표출돼야 합니다』라는 李교수는 후학들에 '헌신'을 강조.

沈輔星 교수 〈醫大 醫學〉

『특별한 감회는 없습니다. 욕심같아서는 외래환자도 계속보고 싶은데 이제 후배들에게 다 넘겨주어야지요. 퇴임후에는 손해보험심사에서 신경외과분야를 맡아볼 작정입니다』라고 퇴임소감을 대신하는 沈輔星교수.

『우리나라는 응용과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기초의학 연구가 뒤떨어졌다』고 국가의 정책적 후원을 강조하는 沈교수는 53년 이래 본교에 재직해 오면서 「우수한 후진들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이 보람이라고.

『신경외과가 창설된지 30년만에 국제수준에 이른 것은 선후배들의 덕택』이라고 겸손해 하는 沈교수는 60년도에 창설한 신경외과학회의 발전을 지켜보는 것이 생활의 樂이라고.

▲兪碩鎭(44년 醫大卒·베드로神經精神科院長·本會理事)=3월6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달라스에서 열렸던 세계국제로타리총재협의회에 참석. 또한 夫人 金明係(55년音大卒)동伴도 이 대회에 음악프로를 담당하여 동행.

▲權鼎赫(47년 醫大卒·前母校總長·本會理事)=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

▲金熹洙(49년 文理大卒·母校自然大敎授)=최근 한국자연보존협회 이사회및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

▲李應百(49년 師大卒·母校名譽敎授·本報編輯委員)=2월19일에서 3월1일까지 印度·스리랑카의 佛敎聖地를 순례함. 또 3월24일에는 韓國隨筆文學振興會 회장으로서 제8회 現代隨筆文學賞및 現代隨筆功勞賞을 시상함.

▲曺祥鉉(51년 音大卒·서울유직클럽會長·本會理事)=3월19일에서 4월3일까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34차 마리아카날스 국제콩쿨에 심사위원으로 참석.

▲孫碩柱(52년 商大卒·前文公部藝術局長)=3월6일 公報·文化部 공무원 출신의 친목단체인 사단법인 文公會 제4대 회장으로 피선.

▲金善弘(55년 工大卒·本會副會長)=3월 16일 起亞産業사장에서 起亞그룹회장으로승진.

▲金鍾洙(56년 師大卒)=최근 갈릉시 교육청장에서사임당교육원 원장으로 전보.

▲金榮洙(56년 商大卒·本會理事)=최근 江原道敎育硏究院長에서 江陵市草堂洞에 신축개원한 江原道敎員硏修院長으로 부임.

▲秋世煥(56년 商大卒·本會理事)=2월15일 雙龍製紙 사장에서 雙龍重工業 사장으로 전임.

▲金榮鎭(57년 農大卒·本會理事)=2월27일자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에서 농업진흥공사 사장으로 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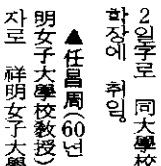
▲盧在鳳(57년 文理大卒)=3월19일자로 대통령 정치특보에서 비서실장에 임명됨.

▲鄭昌淳(57년 法大卒)=지난 2월23일 韓一銀行 상무이사에서 전무이사로 승진.

▲趙南煜(57년 法大卒·三扶土建社長·國會議員·本會副會長)=2월23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大韓建設協會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재선.

▲兪彩濬(58년 工大卒)=3월2일 大韓電線 부사장에서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趙漢國(58년 齒大卒·慶熙大敎授)=지난 2월 2일字로 同大學校의 齒科大學長으로취임.



▲金鳳任(59년 音大卒·慶熙大敎授·本會理事)=지난 2월 2일字로 同大學校의 음악대학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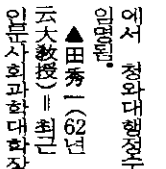
▲任昌周(60년 師大卒·祥明女子大學校敎授)=3월1일자로 祥明女子大學校 대학원장에 취임.

▲鄭東哲(60년 醫大卒·정동철신경정신과의원장)=최근 동서문학사에서 정신의학 에세이「정동철의 사람보기」를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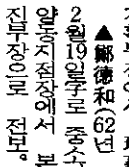
▲尹沃榮(61년 文理大卒)=3월19일字로 안기부 기획조정실 장에서 수산청장에 임명됨.

▲尹世榮(61년 法大卒·㈜泰榮회장·本會理事)=지난 3월 13일, 제14회 해운의날을 맞아 인천항연안 항구축조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수산청장에서 아남정밀㈜ 부사장으로 전보.

▲李永隆(62년 美大卒·啓明大敎授)=3월1일字로 啓明大 美大學長에 취임.



▲李相培(62년 法大卒·本會理事)=3월19일字로 내무부차관에서 청와대행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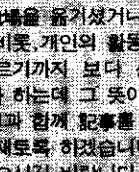


▲田秀一(62년 法大卒·光云大敎授)=최근 光云大學校 인문사회과학대학장에 취임.

▲朴萬玉(62년 商大卒)=2월22일字로 조흥은행 업무기획부장에서 理事로 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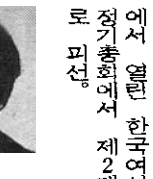
▲鄭德和(62년 商大卒)=2월19일字로 중소기업은행 화양동지점장에서 본점 수신부 진부장으로 전보.

▲金正吉(62년 音大卒·母校音大敎授·本會理事)=지난 2월21일에 열린 創樂會의 정기총회에서 새회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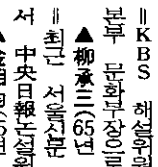
▲林漢錫(63년 商大卒)=최근 대한공학공업㈜ 부사장 에서 아남정밀㈜ 부사장으로 전보.

▲權潤芳(63년 師大敎授)=최근 서울YWCA 정기총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체육학회 제2대 회장으로 피선.



▲朴貞浩(63년 醫大卒·母校醫大敎授)

▲曺圭香(64년 法大卒)=3월19일字로 문교부 기획관리실장에서 문교부차관으로 승진.



▲兪千根(64년 師大卒)=3월1일字로 용산고등학교교감에서 陽西中學校 교장으로 영전.

▲朴應七(65년 文理大卒)=KBS 해설위원에서 보도본부 문화부장으로 전보.

▲柳承三(65년 文理大卒)=최근 서울신문 논설위원에서 中央日報논설위원으로전임.

▲金相均(65년 商大卒)=지난 2월14일字로 한국감정원 전주지점장에서 서울본점 기획부장으로 전보.

▲徐敏錫(66년 工大卒·東一紡織社長·本會理事)=모교 섬유공학과에 靜軒섬유도서실을 마련해주고 3월8일 개관식을 가짐.

▲許信行(66년 農大卒)=2월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에서 이사장겸 원장에선임.

▲曺相鎬(67년 行政大學院卒·前體育部長官·本會理事)=86서울올림픽의 유치및 성공적 완수에 크게 기여하는등 한국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檀國大에서 名譽法學博士학위를 취득.

▲玄在賢(71년 法大卒·東洋그룹會長·本會理事)

▲金昌男(67년 商大卒)=최근 카나다로양은행서울지점장에서 내쇼날 카나다은행 서울지점장으로 전임.

▲朴聖義(67년 法大卒)=지난 2월 신한은행 역삼동지점장에서 무역센타지점장으로 전보.

▲申斗泳(39년 農大卒·前감사원장)=3월 4일 銅雀區大方洞381-3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 향년 72세.

故 申斗泳은 公州高교사를 거쳐 忠南道 장학관으로 공무원생활을 시작, 제1공화국 국무원사무국장·총무처소청심사위원장·감사원사무총장·청와대사정담당특보등을 지냈다.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동창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717) 8536~7

掲示板

謹弔

結婚

同窓會館 관악홀

△최경렬(85년 師大卒)군·김혜숙양=4월1일 오후2시30분.

△김인찬(90년 工大卒)군·이혜원양=4월1일 오후4시.

△이내응(86년 工大卒)군·김명진양=4월5일 오전11시.

△이충섭(86년 工大卒)군·문수경양=4월5일 오후2시.

△송달룡(82년 法大卒)군·황윤영(89년 音大卒)양=4월5일 오후3시30분.

△구본호(88년 大學院卒)군·노미혜양=4월7일12시.

△김종철(85년 人文大卒)군·정 연(85년 人文大卒)양=4월7일 오후1시30분.

△여인만(86년 社會大卒)군·김영애(86년 社會大卒)양=4월7일 오후3시.

△황호기(85년 工大卒)군·후정미양=4월7일 오후4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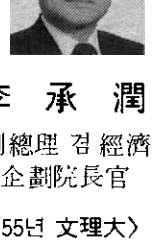
△남경태(84년 社會大卒)군·성광일양=4월8일 오전11시30분.

△정재규(88년 大學院卒)군·최은미양=4월8일 오후1시.

△김재수(83년 工大卒)군·백 인양=4월8일 오후2시30분.

△이재홍(88년 經營大卒)군·재갈영숙양=4월8일 오후4시. △이상호(85년 工大卒)군

3·17 入閣동문 프로필



李承潤

副總理 겸 經濟企劃院長官

〈55년 文理大〉

南悳祐전총리와 金滿堤전부총리등에 이은 西江大학파의 주축·母校교수와 재무장관, 舊민정당 정책위원회의장등을 역임해 이론과 실무(實物경제)를 겸비했다는 評을 받고 있다.

美위스콘신大 박사출신으로 3選의원「新화폐금융론」등의 저서가 있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현 경제사정의 절박성에 비춰볼 때 투자활성화와 수출증진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李부총리는 가족으로 부인 鄭瑥謨여사와의 사이에 1남2녀가 있다.

鄭永儀

財務部長官

〈59년 文理大 卒〉

재무부의 要職局長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친 화려한 경력의 재무관료출신으로 일처리가 다부지고 합리적이어서 위아래가 다 좋아하는 실무형.

한때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겨 공정거래委 상임위원장과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를 지내기도 했으나 83년에는 다시 통아와 제2차관보 차관을 역임했다.

産銀총재 재직시절에는 국제금융업무개발등 조직의 活性化에 힘썼다.

운동은 만능으로 골프도 실력수준. 부인 金順子여사와의 사이에 1女.

鄭根謨

科技處長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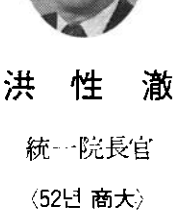
〈59년 文理大 卒〉

京畿高1학년때 大入검정고시에 수석합격, 이듬해 모교 文理大에 次席으로 입학했으며 24세때 美미시간大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과학계의 걸물. 지난해 공산국가의 지지까지 받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장에도 선출돼 국제적인 명성도 얻었다.

한국인으로 국제기구長에 피선된 것은 그가 최초.

KAIST창립멤버로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뉴욕工大교수 한국전력기술사장등 産·學·硏에서 두루 활동했다.

부인 吉慶子여사와의 사이에 1男2女.



洪性澈

統一院長官

〈52년 商大〉

총리비서실장 내부·보사부장관을 역임한 長身의 호남형으로 모나지 않은 성격. 남북이산가족대표로 平壤을 다녀오기도 했다.

87년 대통령선거당시 以北5道民연합회장으로 盧泰愚대통령당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인연으로 6공화국 초대대통령비서실장에 발탁되었고, 이번에는「以北전문가」라는 장점이 통일원장관으로 이어진 셈.

英語에도 능통하여 駐美공사를 거치는등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갖고 있다.

부인 金秀映여사와의 사이에 2男2女.

李季順

政務2長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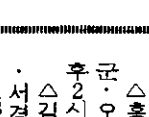
〈52년 師大 卒〉

63년부터 26년간 모교 師大에서 英語敎育을 담당해온 言語學교수. 77년부터 전문직여성클럽 韓國연맹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을 맡아오면서 사회활동전면에 나선 여성운동가.

평소 주관이 뚜렷하고 논리적이며 원칙을 중시한다는 평.

틈틈이「英語교육 이론과 지도방법」·「韓日語 대조분석」등의 저술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양인터내셔날」이란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부군 曺관현씨와의 사이에 2男1女.



崔相曄

法制處長

〈61년 法大 卒〉

61년 사법·행정 양과에 합격, 줄곧 서울지검과 대검및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고시13회의 선두그룹을 형성해온 公安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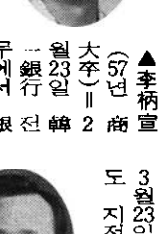
大檢 형사2부장 시절 慶南 宜寧총기난동사건의 합동조사반장으로 활약하기도. 깔끔하고 세련된 매너로 상하의 신임과 존경을 한몸에 받아온 그는 82년부터 87년까지 5년간 公安격동기의 검찰지휘탑으로 연임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지검·고검장등 일선지휘관의 경력을 쌓지못하는 불운도 있었다. 유전공학박사인 崔慶喜여사와 86년 晩婚.

▲金炯培(55년 法大卒·前工業振興廳長)=3월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국공업표준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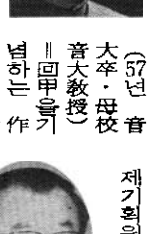
▲李慶淑(55년 音大卒·母校 音大敎授)=藝術歌曲槪論(마이스터)의 譯書를 한국학술진흥재단 번역총서로 출판.

▲韓鳳洙(56년 法大卒·前韓電社長·本會理事)=2월 23일 열린 大韓商事仲裁院 정기총회에서 원장으로 선임.

▲崔先根(57년 法大卒·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상장회사 유상증자조정위원회 위원장직도 겸임하며 최근에는 일본경영자대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일본의 증자조정과정 실태를 파악하고 귀국.



▲李柄宣(57년 商大卒)=2월23일 韓一銀行 전무에서 銀行長으로 승진.



▲金容振(57년 音大卒·母校 音大敎授)=回甲을 기념하는 作曲同人 소리목의 제3회 발표회가 3월14일 리사이틀 홀에서 열림.

▲李鎭高(61년 商大卒)=3월19일부로 건설부 차관에서 경제기획원 차관에 임명됨.

▲黃正顯(62년 文理大卒)=최근 韓國經營者總協會 전무이사에서 常任副會長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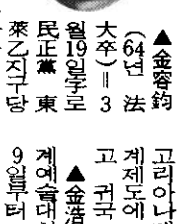
▲金容九(61년 師大卒)=3월1일부로 경남고등학교교장에서 동부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전보.

▲鄭鎭儀(61년 師大卒)=3월1일부로 세화여고 교감에서 세화여중 교장으로 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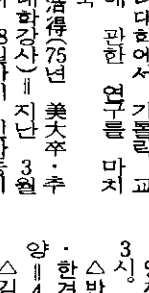
▲朴錫台(61년 商大卒)=3월23일부로 第一銀行 여의도 지점장에 취임.

▲盧健一(64년 文理大卒·本會理事)=3월19일부로 산림청장에서 내무부차관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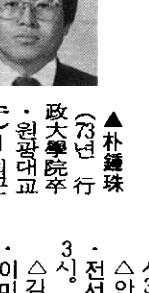
▲金榮秀(64년 法大卒)=3월19일부로 안기부장특별보좌관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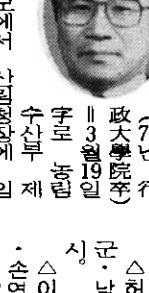
▲金容鈞(64년 法大卒)=3월19일부로 安기부제1차장에 임명됨.



▲朴鍾珠(73년 行政大學院卒·원광대교수)=최근 로마 그레고리아나대학에서 교회법에 관한 연구를 마치고 귀국.



▲李東雨(71년 行政大學院卒)=3월19일부로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에서 산림청장에 임명됨.



▲金浩得(75년 美大卒·추계예술대학강사)=지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신사동이화랑 개관기념 한국화3인전에「계곡」시리즈작품을 출품.

· 강수경양=4월12일 오후 12시30분.

△윤성구(87년 法大卒)군·이숙희양=4월14일 오전 10시30분.

△허병하(89년 社會大卒)군·남궁선정양=4월14일 12시.

△이창현(86년 農大卒)군·손영미양=4월14일 오후 1시30분.

△안길업(88년 農大卒)군·전선묵양=4월14일 오후 3시.

△김재홍(90년 農大卒)군·이미경양=4월15일 12시.

△최호근(87년 工大卒)군·양점애양=4월15일 오후 3시.

△반동찬(90년 工大卒)군·한경납(看護學科 재학중)양=4월21일 오전11시.

△김광은(85년 工大卒)군·서난경양=4월21일 12시.

△강용태(89년 大學院卒)군·구효정(88년 藥大卒)양=4월21일 오후1시30분.

△임용삼(89년 工大卒)군·최지희양=4월21일 오후 3시.

△구자환(89년 大學院卒)군·김신영양=4월21일오후 4시30분.

△김완수(87년 工大卒)군·김영경(88년 師大卒)양=4월22일 12시.

△권기대(89년 農大卒)군·구말자양=4월22일 오후 1시30분.

△이상우(86년 工大卒)군·이윤정(88년 人文大卒)양=4월22일 오후3시.

△조현서(84년 農大卒)군·염동환양=4월28일 오전 11시.

△한성수(85년 工大卒)군·원유미양=4월28일 오후 12시30분.

△홍하일(88년 獸醫大卒)군·오 숙양=4월28일 오후2시.

△김주천(87년 師大卒)군·서경선(88년 師大卒)양=4월28일 오후3시30분.

△윤상호군·홍희정(86년 看護學科卒)양=4월29일 오전11시30분.

△조병규(86년 人文大卒)군·강경자양=4월29일 오후1시.

△최국태(87년 自然大卒)군·박정운양=4월29일 오후2시30분.

△박봉수(獸醫大 재학중)군·강동희양=4월29일 오후 4시.

年會費 내주신 분

(理事 = 2월 16일 ~ 3월 14일까지
會員 = 2월 16일 ~ 3월 14일까지)

※ 人名밑의 원내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理事

◇工科大學

▲원용선 49 삼원기업사장

◇獸醫科大學

▲金萬泳 54 경미농장대표

一般會員

◇人文大學

▲곽정미 89 ▲김경철 ▲김대환 85 ▲김복택 57 ▲김의진 88 ▲김찬환 74 ▲박상우 88 ▲박성민 87 ▲오이환 77 ▲이배홍 82 ▲이상오 87 ▲이성영 89 ▲이문하 84 ▲정희보 79 ▲진기웅 78 ▲진상옥 77 ▲최준용 88 ▲최태영 80 ▲홍영호 79

◇社會大學

▲강덕구 87 ▲고재홍 88 ▲공종열 79 ▲김형기 79 ▲김형진 84 ▲박육규 86 ▲서장석 ▲손희배 ▲송기동 86 ▲안성문 87 ▲오문석 85 ▲윤일성 87 ▲이남기 76 ▲이돈록 ▲이내수 78 ▲이병로 ▲이로홍 76 ▲이장익 87 ▲이원수 ▲이준일 65 ▲이진만 87 ▲전건호 ▲전주봉 86 ▲정홍상 80 ▲진태환 77 ▲최원석 86 ▲허원제 78 ▲홍성민 89 ▲황성일 62

◇自然大學

▲김재우 76 ▲김재원 85 ▲김진오 79 ▲김태진 86 ▲박경배 60 ▲박찬순 ▲서의훈 78 ▲서인실 85 ▲서정식 78 ▲손문영 85 ▲우정하 83 ▲이순열 83 ▲이준원 86 ▲이찬서 87 ▲이한형 80 ▲임하나 86

◇工科大學

▲강용 78 ▲강경일 79 ▲강영운 46 ▲강석규 50 ▲강성언 69 ▲강영진 55 ▲강화모 59 ▲고석렬 56 ▲고원태 57 ▲고재선 52 ▲고재홍 56 ▲고종훈 ▲고종혁 ▲고한규 72 ▲공성일 60 ▲구본국 69 ▲곽철은 ▲곽한우 77 ▲권기정 67 ▲권영식 78 ▲권주웅 62 ▲권오갑 71 ▲권이묵 50 ▲권익현 73 ▲권태준 ▲권해욱 77 ▲김경란 75 ▲김상화 79 ▲김진우 56 ▲김춘식 59 ▲강윤길 57 ▲김광세 ▲김보훈 50 ▲김연식 56 ▲김장섭 50 ▲나형용 58 ▲윤록규 65 ▲이면우 68 ▲이동녕 ▲이충웅 58

▲정인범 89 ▲정해진 86 ▲조욱상 78 ▲최우순 85 ▲최정도 66 ▲한창우 79 ▲홍경환 81 ▲황찬용 85

◇家政大學

▲박혜정 83 ▲박희순 64 ▲송남순 69 ▲이순원 58 ▲이승선 ▲이효진 84 ▲이화령 81 ▲임은순 86 ▲임영선 83 ▲정민자 84 ▲조은경 ▲주정일 48 ▲최경희 63 ▲한영옥 60 ▲황인경 74

◇經營大學

▲강좌구 86 ▲김진택 ▲김한수 80 ▲박치우 ▲방영민 76 ▲배준호 85 ▲신철호 86 ▲안주헌 81 ▲오진환 81 ▲오창석 ▲오창호 82 ▲이 평 78 ▲이광우 77 ▲이용호 78 ▲이재영 79 ▲이종록 ▲이태화 84 ▲이현철 87 ▲정덕기 85 ▲정재환 86 ▲제준환 79 ▲조필호 86 ▲차정호 ▲최승환 86 ▲황성엽 86

▲김광옥 61 ▲김규갑 61 ▲김기환 61 ▲김기호 60 ▲김기정 75 ▲김남석 60 ▲김덕삼 ▲김덕원 76 ▲김도웅 56 ▲김부진 65 ▲김병옥 67 ▲김석근 57 ▲김성웅 77 ▲김세종 64 ▲김스운 55 ▲김영덕 67 ▲김영선 77 ▲김영윤 66 ▲김용태 57 ▲김원섭 52 ▲김원태 61 ▲김의박 65 ▲김이봉 64 ▲김정호 51 ▲김정원 70 ▲김정건 71 ▲김재호 62 ▲김재홍 43 ▲김재선 56 ▲김인영 76 ▲김들권 61 ▲김원일 67 ▲김용희 59 ▲김영치 64 ▲김염선 77 ▲김신정 65 ▲김세진 69 ▲김성웅 69 ▲김석철 88 ▲김병웅 66 ▲김부언 ▲김토욱 67 ▲김도수 ▲김덕우 85 ▲김대규 65 ▲김남길 65 ▲김기호 ▲김기정 ▲김광우 75 ▲김기웅 ▲김기환 50 ▲김기원 ▲김남길 ▲김도수 ▲김덕우 ▲김덕삼 ▲김덕원 ▲김도웅 ▲김부진 ▲김병옥 ▲김석근 ▲김성웅 ▲김세종 ▲김스운 ▲김영덕 ▲김영윤 ▲김용태 ▲김원섭 ▲김원태 ▲김의박 ▲김이봉 ▲김정호 ▲김정원 ▲김정건 ▲김재호 ▲김재홍 ▲김재선 ▲김인영 ▲김들권 ▲김원일 ▲김용희 ▲김영치 ▲김염선 ▲김신정 ▲김세진 ▲김성웅 ▲김석철 ▲김병웅 ▲김부언 ▲김토욱 ▲김도수 ▲김덕우 ▲김대규 ▲김남길 ▲김기호 ▲김기정 ▲김광우 ▲김기웅 ▲김기환

3월 회비납부실적 好調

工大 4백 5명으로 가장 많아

▲박재태 ▲박종우(70) ▲박준수(61) ▲박창래(59) ▲박철웅(67) ▲박현문 ▲박충순 ▲배동훈(55) ▲백인기(56) ▲서경석(71) ▲서승완(64) ▲석동현(63) ▲손익수(70) ▲손제희(65) ▲송영식 ▲신봉식(58) ▲신언한(62) ▲신인식(78) ▲신충대(72) ▲신홍범 ▲안문태(64) ▲안영도(69) ▲양건주(51) ▲엄기염 ▲오오현(66) ▲오현진(63) ▲유문역(58) ▲유재방(42) ▲유재인(62) ▲유종해(54) ▲윤보옥(70) ▲윤정진 ▲윤형도(64) ▲이갑훈 ▲이경호(65) ▲이관홍(60) ▲이기웅(54) ▲이덕구 ▲이도조 ▲이동희(61) ▲이범찬(57) ▲이부찬(65) ▲이상배(62) ▲이상원(56) ▲이성호 ▲이세훈(61) ▲이수영(37) ▲이영섭(42) ▲이영재(54) ▲이용권(61) ▲이운상(49) ▲이임수(64) ▲이재호(64) ▲이창범(57) ▲이한우 ▲이현주 ▲이홍규 ▲임규오 ▲임철홍(67) ▲장태진 ▲전수일(62)

▲박종덕(61) ▲박종익(68) ▲박찬홍(64) ▲박철우 ▲박춘석(40) ▲박태흠(62) ▲반기로(73) ▲배석필(62) ▲서 성(64) ▲서규영(63) ▲서형석(59) ▲성봉경(62) ▲손정현 ▲손필영 ▲신 신(59) ▲신삼규(61) ▲신완수(59) ▲신정철(56) ▲신현호 ▲신희택 ▲안병우(70) ▲양 영(66) ▲양재구(44) ▲오강근(68) ▲오훈덕(65) ▲우정권(66) ▲유영해(46) ▲유정현(66) ▲유재선(67) ▲유정식(62) ▲유길우 ▲윤명중(69) ▲윤삼록(56) ▲이 용(55) ▲이관빈(49) ▲이경배(65) ▲이갑훈 ▲이논규 ▲이덕열(53) ▲이돈두(60) ▲이무룡 ▲이보헌(63) ▲이삼구(68) ▲이상용(57) ▲이상휘(58) ▲이세복(65) ▲이수길(66) ▲이순록(58) ▲이영애(71) ▲이영준(61) ▲이우철(71) ▲이인백 ▲이재인(54) ▲이재환(79) ▲이창수(57) ▲이현돈(72) ▲이호연(64) ▲이홍근(59) ▲임규운(57) ▲장준봉(60) ▲정구승(75)

▲정동호(63) ▲정병건 ▲정연조(59) ▲정재헌(60) ▲정진박(79) ▲정진태 ▲정진규(71) ▲정태찬 ▲정훈보(61) ▲정희준(63) ▲조 석(65) ▲조석준(67) ▲조규향(64) ▲조대현(73) ▲조성대(67) ▲조용운(63) ▲조춘열(60) ▲조택근(58) ▲주덕인(70) ▲지원훈(65) ▲차운석(64) ▲최기혁 ▲최덕기(83) ▲최병우(60) ▲최상엽(61) ▲최선근(57) ▲최선호(63) ▲최수만(66) ▲최우석(63) ▲최준호(56) ▲최춘기(61) ▲최충식(64) ▲최치원(64) ▲최하영(70) ▲허 영 ▲허수태(77) ▲허택원(57) ▲현병무(56) ▲홍명선(55) ▲황병호(58) ▲황병일 ▲황선부(64) ▲황영하(64) ▲황재성 ▲황철우(60) ▲송길상(63)

◇師範大學

▲강동우 ▲강병훈(36) ▲강절희(31) ▲강철용(76) ▲강상철(57) ▲고갑복(53) ▲고병철(65) ▲고부헌(76) ▲공우영(58) ▲곽병선(70) ▲곽순명(57) ▲구관석(77) ▲구 관(65) ▲구헌회(59) ▲길우석(61) ▲김 정(52) ▲김경애(70) ▲김국태(63) ▲김낙현(48) ▲김동균 ▲김동화(58) ▲김만기(63) ▲김병만(53) ▲김상옥 ▲김신환(78) ▲김수한(74) ▲김순매(40) ▲김신일 ▲김연식(55) ▲김순애(60) ▲김순동(56) ▲김성식(76) ▲김선식(62) ▲김병준(61) ▲김부홍(64) ▲김동희(77) ▲김동배(62) ▲김남록(60) ▲김귀봉(63) ▲김광수(66) ▲김경우 ▲김 인(72) ▲김 일(50) ▲김경국(71) ▲김길용(66) ▲김재현(77) ▲김봉수(56) ▲김봉필 ▲김봉호(66) ▲김루선(74) ▲김태언(66) ▲김창환(60) ▲김진철 ▲김홍기(76) ▲김홍범(58) ▲나청운(64) ▲노두호(55) ▲목사균(54) ▲민병찬(56) ▲박상무(57) ▲박성숙 ▲박송자(67) ▲박양수(59) ▲박용관(53) ▲박용중(46) ▲박원선(64) ▲박정모(78) ▲박종원(57) ▲박준희(50) ▲박찬정 ▲박태화(56) ▲배광홍(58) ▲배종두(53) ▲배원환(81) ▲백운택(63) ▲백인국(65) ▲백승권(57) ▲박진영(59) ▲박태우(57) ▲박평우(60) ▲박춘관(61) ▲박종순(64) ▲봉정모 ▲변탁연 ▲부기원 ▲선우문숙 ▲서영수(55) ▲성홍경(61) ▲손연주 ▲손임녀(50) ▲손용건(65) ▲송정헌 ▲신동근(57) ▲신용삼(48) ▲신정선(59) ▲신혜순(51) ▲신홍균 ▲신일운(79) ▲심재완(40) ▲안상원(55) ▲안동환(59) ▲양순직(49) ▲양기석(71) ▲양국성(27) ▲양동영(64) ▲양인환(58) ▲임순근(62) ▲임화순(83) ▲장근화(57) ▲장명화(37) ▲장추근(52) ▲전문표(65) ▲전홍준(34) ▲정만영(67) ▲정봉채(64) ▲정순철(45) ▲정의포(77) ▲정주혁 ▲정찬문(53) ▲정태범(84) ▲정해근(57) ▲정호삼(52) ▲조 현(55) ▲조규연(62) ▲조숙선(38) ▲조용완 ▲조은문(42) ▲조헌민(77) ▲진순례(57) ▲진패현(56) ▲최민기 ▲최병찬(45) ▲최영섭(78) ▲임창주(60) ▲장경기 ▲장기옥(61) ▲장보홍(59) ▲전기채(55) ▲전혜인(48) ▲정경모(48) ▲정봉현(72) ▲정주영(62) ▲정신화(75) ▲정종호(64) ▲정진의(61) ▲정창권(67) ▲정하신(61) ▲정호경 ▲정홍숙 ▲조갑현(74) ▲조기호(58) ▲조용란(59) ▲조원형(59) ▲조재영(40) ▲주육규(54) ▲진원두(72) ▲최귀동(55) ▲최병우(60) ▲최병호(61) ▲최재덕

▲고현옥(72) ▲공정태(57) ▲구선회(60) ▲권영달(55) ▲권태원 ▲길영배(58) ▲김경현 ▲김광진(60) ▲김길환(65) ▲김병기(61) ▲김부홍(74) ▲김병선(52) ▲김상규(51) ▲김상은(57) ▲김승환(71) ▲김여관(62) ▲김영모(51) ▲김영만 ▲김영상(51) ▲김영태(66) ▲김완기(65) ▲김용호(62) ▲김우년(61) ▲김웅태(57) ▲김재한(45) ▲김종국(59) ▲김춘성(58) ▲김진섭(62) ▲공정관 ▲곽치영(65) ▲구제성(64) ▲권태명(64) ▲권태윤(51) ▲김경우 ▲김광욱(74) ▲김광태(68) ▲김동우(58) ▲김병기(61) ▲김상규(65) ▲김선호(52) ▲김성태(63) ▲김연조(62) ▲김영모(61) ▲김영진(47) ▲김영호 ▲김용성(62) ▲김용오(59) ▲김욱한(64) ▲김재철(66) ▲김정우(69) ▲김종순(52) ▲김춘환 ▲김진호(51) ▲강내용 ▲강봉균(68) ▲강영종(70) ▲고덕영(66) ▲고재호(70) ▲강동우(57) ▲강연규(51) ▲계영희(59) ▲고승균(57) ▲고한영(58) ▲최정옥 ▲최진환(52) ▲최희유(73) ▲추암석(72) ▲한경옥(63) ▲한상덕(62) ▲한태명(74) ▲허만현(56) ▲현병훈(66) ▲홍성화(63) ▲홍승희(57) ▲황선용 ▲황승희(70) ▲황재익 ▲김혜순(74) ▲박충하(72) ▲서병완 ▲이길오(77) ▲조경래(74) ▲정홍근 ▲최종옥(59) ▲추건이(63) ▲한 주(49) ▲한문희(57) ▲한상열(62) ▲한홍수(50) ▲허뮤구(51) ▲현순영 ▲홍성룡(52) ▲홍재익 ▲황재선(58) ▲김길홍(66) ▲김현구(65) ▲김형철(73) ▲노경섭(67) ▲노영구 ▲마분호(51) ▲문성철 ▲문영지(59) ▲민경재(59) ▲민병태 ▲박경하(58) ▲박기능 ▲박동일 ▲박병섭(62) ▲박병호(58) ▲박순화(68) ▲박영록(63) ▲박상기 ▲신용하(61) ▲김영석(58) ▲박원준(67) ▲박정수(66) ▲박종태(57) ▲박태영(66) ▲박현도(71) ▲김길홍(66) ▲김현곤(67) ▲김형영(60) ▲김홍열(57) ▲노경진(59) ▲류태환(54) ▲문덕만 ▲문수만(64) ▲문태철(62) ▲민병국(66) ▲민병윤(60) ▲박관현(58) ▲박대룡(57) ▲박만옥(62) ▲박병열 ▲박석태(61) ▲박승현(71) ▲박용대 ▲송병락(63) ▲심병구(53) ▲박육희(57) ▲박은진(58) ▲박종민(72) ▲박중대(57) ▲박한수(57) ▲배갑분(51) ▲김진화(65) ▲김천식(64) ▲김천구(65) ▲김현곤(67) ▲김천기(66) ▲김천옥(51) ▲김현철(73) ▲김홍열(57) ▲김형영(60) ▲김현동(62) ▲김일영(57) ▲김연근(70) ▲김영옥(51) ▲김동희(64) ▲김재원(59) ▲김상섭(57) ▲김용해(51) ▲김만옥(62) ▲김관현(58) ▲김대룡(57) ▲김만병(60) ▲김병국(66) ▲김태철(62) ▲김영덕(71) ▲김원근(58) ▲김원용(57) ▲김원식(56) ▲김방창(65) ▲김석기(61) ▲김우형(71) ▲김경복(56) ▲김길현(56) ▲김석한(40) ▲김익수(60) ▲김하섭(59) ▲김강일 ▲김경원(64) ▲김규성(63) ▲김기만(58) ▲김기호 ▲김동대(61) ▲김만수(62) ▲김문상 ▲김병국(56) ▲김상규(30) ▲김선호(64) ▲김승우 ▲김영규(64) ▲김영탁 ▲김용규 ▲김용성(60) ▲김용우(65) ▲김원승(64) ▲김은방(61) ▲김재동(61) ▲김재환(66) ▲김종기 ▲김종수 ▲김지언(85) ▲김창옥(51) ▲김춘부 ▲김태휘 ▲김한옥 ▲김혁종(62) ▲김수환(58) ▲김석현(49) ▲김조홍(64) ▲김한석(63) ▲김기팔(62) ▲김부환(51) ▲김종외(64) ▲김두신 ▲김영걸(56) ▲김영덕(71) ▲김영효(61) ▲김재희(58) ▲정 단(67) ▲정교관 ▲안희중(65) ▲양영환(58) ▲양희문 ▲엄성도 ▲엄일영(67) ▲여문환(56) ▲여정부(53) ▲여현동(62) ▲오강옥(60) ▲오연근(70) ▲오영옥(51) ▲오일환(67) ▲오춘희(64) ▲오혁원 ▲우상섭(57) ▲우선부(69) ▲우용해(51) ▲우찬복(59) ▲원용훈(57) ▲원우식(56) ▲원정연 ▲위계신(58) ▲유관필(63) ▲유노상(64) ▲유대진(56) ▲유방창(65) ▲유봉노(62) ▲유석기(61) ▲유세용(75) ▲유우형 ▲유창록(61) ▲유창희(71) ▲유세극(51) ▲유하섭(59) ▲유상규(61) ▲윤길현(56) ▲윤목현(56) ▲윤석한(40) ▲윤익수(60) ▲윤상구(61) ▲윤동수(66) ▲윤하섭(59) ▲이 섭(54) ▲이건식(74) ▲이경원(64) ▲이규성(63) ▲이경복(56) ▲이강일 ▲이 성(65) ▲이 형(64) ▲이구범(73) ▲이동욱(73) ▲이배희(55) ▲이병준 ▲이상재(71) ▲이상원(63) ▲이상규(60) ▲이래화(57) ▲이기태(55) ▲이강하(60) ▲은경자(63) ▲윤형원 ▲윤여운(70) ▲윤기정(72) ▲윤애자(58) ▲윤근성 ▲윤성모(68) ▲윤용혁(64) ▲윤상원(48) ▲윤재은(54) ▲윤기섭(49) ▲윤성룡(76) ▲윤길현(59) ▲윤상규(61) ▲윤세용(75) ▲유창희(61) ▲유창형(57) ▲유석종(60) ▲유세홍(65) ▲유석태(57) ▲육완진 ▲이동식(67) ▲이병국(61) ▲이복규(66) ▲이상윤(66) ▲이승섭 ▲이영규(65) ▲이영보(66) ▲이완영(69) ▲이용기 ▲이용언(65) ▲이원기 ▲이원희(65) ▲이일훈(60) ▲이재원(59) ▲이정환(75) ▲이종성(68) ▲이중희(51) ▲이진우(64) ▲이춘부 ▲이태형(63) ▲이학현(61) ▲이해익(70) ▲이희련(64) ▲임봉규 ▲임영식 ▲임창무(57) ▲임호경 ▲장동우(66) ▲장유상 ▲장화진(57) ▲전우영(64) ▲전영우(55) ▲전용우(66) ▲전재희(58) ▲전종현(61) ▲정관홍(62) ▲엄정일(49) ▲오영은 ▲오진태(58) ▲유창형(57) ▲유성종(60) ▲유세홍(65) ▲한경옥(63) ▲한상열(62) ▲한홍수(50) ▲허뮤구(51) ▲현순영 ▲홍성룡(52) ▲홍재익 ▲황재익 ▲김길홍(66) ▲김현구(65) ▲김형영(60) ▲김홍열(57) ▲노경진(59) ▲류태환(54) ▲문덕만 ▲문수만(64) ▲문태철(62) ▲민병윤(60) ▲박관현(58) ▲박대룡(57) ▲박만옥(62) ▲박병열 ▲박석태(61) ▲박승현(71) ▲박용대 ▲박육희(57) ▲박은진(58) ▲박종민(72) ▲박중대(57) ▲배갑분(51) ▲김천기(66) ▲김천옥(51) ▲김현곤(67) ▲김형영(60) ▲김홍열(57) ▲노경진(59) ▲류태환(54) ▲문덕만 ▲문수만(64) ▲문태철(62) ▲민병국(66) ▲민병윤(60) ▲박관현(58) ▲박대룡(57) ▲박만옥(62) ▲박병열 ▲박석태(61) ▲박승현(71) ▲박용대 ▲송병락(63) ▲심병구(53) ▲박육희(57) ▲박은진(58) ▲박종민(72) ▲박중대(57) ▲배갑분(51) ▲김진화(65) ▲김천식(64) ▲김천구(65) ▲김현곤(67) ▲김천기(66) ▲김천옥(51) ▲김현철(73) ▲김홍열(57) ▲김형영(60) ▲김현동(62) ▲김일영(57) ▲김연근(70) ▲김영옥(51) ▲김동희(64) ▲김재원(59) ▲김상섭(57) ▲김용해(51) ▲김만옥(62) ▲김관현(58) ▲김대룡(57) ▲김만병(60) ▲김병국(66) ▲김태철(62) ▲김영덕(71) ▲김원근(58) ▲김원용(57) ▲김원식(56) ▲김방창(65) ▲김석기(61) ▲김우형(71) ▲김경복(56) ▲김길현(56) ▲김석한(40) ▲김익수(60) ▲김하섭(59) ▲김강일 ▲김경원(64) ▲김규성(63) ▲김기만(58) ▲김기호 ▲김동대(61) ▲김만수(62) ▲김문상 ▲김병국(56) ▲김상규(30) ▲김선호(64) ▲김승우 ▲김영규(64) ▲김영탁 ▲김용규 ▲김용성(60) ▲김용우(65) ▲김원승(64) ▲김은방(61) ▲김재동(61) ▲김재환(66) ▲김종기 ▲김종수 ▲김지언(85) ▲김창옥(51) ▲김춘부 ▲김태휘 ▲김한옥 ▲김혁종(62) ▲김수환(58) ▲김석현(49) ▲김조홍(64) ▲김한석(63) ▲김기팔(62) ▲김부환(51) ▲김종외(64) ▲김두신 ▲김영걸(56) ▲김영덕(71) ▲김영효(61) ▲김재희(58) ▲정 단(67) ▲정교관

同門여러분의 精誠이 모아져 母校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醫科大學

◇藥學大學

◇獸醫科大學

◇農科大學

◇師範大學

◇工學大學

◇大學院

◇敎育大學

◇生活科學大學

◇音樂大學

◇美術大學

◇體育大學

◇法學大學

◇社會科學大學

◇人文大學

◇自然大學

◇工學大學

◇醫科大學

◇藥學大學

◇獸醫科大學

◇農科大學

◇師範大學

◇大學院

◇敎育大學

◇生活科學大學

◇音樂大學

◇美術大學

◇體育大學

◇法學大學

◇社會科學大學

◇人文大學

◇自然大學

〈가나다 순〉

꾸준한 社會활동, 규칙적인 生活

나의 健康法

李珌奭 國際火災海上保險회장

새벽5時 起床 北嶽山 산책 퇴근후 水泳으로 疲勞풀어

옛말에 「一日一生」이란 말이 있다. 일생을 하루처럼 살라는 것이다. 즉 매일 건강하며 충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人生을 살 수 있을뿐아니라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요즘에 와서는 최신 醫學의 발달과 나아진 생활주준으로 점차 高齡化 사회로 되면서 長壽하는 인구가 늘었지만, 어쨌든 無病長壽하며 안락한 노후를보내고 있다면 주위의 부러움을 살만하다.

喜壽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원기왕성한 활동력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丹菴 李珌奭동문의 「健康」은 이미 財界에서 인정한 사실인 것이다.

지난 35년 京城高商을 졸업한후 오랫동안 금융업에 종사해온 李동문은 50세전에 이미 은행장과 은행총재를 역임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國際火災海上保險을 설립하여 정상의 업체로 성장시키는 등의 신전에 비해 많이 늘었지만 어쨌든 無病長壽하며 안락한 노후를보내고 있다면 주위의 부러움을 살만하다.

喜壽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원기왕성한 활동력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丹菴 李珌奭동문의 「健康」은 이미 財界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특히 지난 3월8일에는 모교 경영대 신축건물에 마련될 도서실의 비품시설비로 6천5백만원을 기증해놓문은 『平生을 절약·근검하는 생활로 일관해와 주위로부터 구두쇠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는데 남은 여생을 정리하다가 그동안의 생활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지. 그결과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一助하는 것이 곧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지름길이란생각에서 후배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지라며 겸손해 한다.

◇李회장은 「건강은 마음가짐에서 오는것」이라며 즐거운 마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것이 최고라고 말한다.

李동문의 건강비결은 특별한 것이 없다. 『건강은 마음가짐에서 오는것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 또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만큼 건강을 누릴수 있는것이다.

李동문은 새벽 5시전에는 일어나 집근처 북악산에서 아침산책을 즐긴다. 그리고 조반을 장죽과 빵으로 대신하고 출근한후 집무를 보다 점심식사는 외부에서 美食으로 잘 먹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小食을 즐긴다고. 또한 오후 퇴근길에는 헬스클럽에 들러 기계체조와 수영으로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낸다. 거기에 덧붙여 1주일에 두번정도는 꼭 골프장을 찾는등 평소에 늘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굳세게·참되게·빛나게」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李동문은 오래전부터 自訓으로 삼아온 「忍耐 勇氣 誠實 勤勉」을 바탕으로 인생의 完熟期에서 건강한 삶을 지켜가고있다.

교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1백73㎝의 신장에 78㎏의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李동문의 건강비결은 특별한 것이 없다. 『건강은 마음가짐에서 오는것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것을 최고라고 말한다.

인 생활을 하는 것을 최고로 꼽는다. 하지만 이세상 어느 하나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다.

趣味·生活

바둑篇 〈10〉

—朴 治 文

〈79년 人文大卒·世界日報記者〉

曺9단의 不可思議한 敗因

曺薰鉉9단이 일본의 武宮9단과 벌인 세계정상대결 3번기 제2국. 黑을 쥔 武宮은 예상대로 3連星을 통해 전매특허인 「宇宙流」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曺9단은 白△석점이 보여주듯 연달아 중앙으로 뛰어 黑勢견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武宮이 黑1로 받은 장면. 이때 曺9단은 커다란 방향착오를 범한 것. 지금 상황은 이미 白은 실리를 파는 대신 勢의 폭을 넓혀야 했다. 또 「두자가 많이 된 쪽에 중점을 둔다」는 棋理대로 상변을 귀중하게 여겨야 했다.

다시말하여 白은 2로 귀를 파들어가지않고 「가」에 먼저 지키고 黑이 「나」로 지킨다면 「다」로 계속 확장해가야 옳았다.

右下귀에서 후수를 잡고 17을 당하자 白△석점의 勢가 놓여 곧바로 변했다. 그리하여 黑의 실리와 白의 勢力으로 변했기 때문에 白은 실리를 파는 대신 勢의 폭을 넓혀야 했다. 또 「두자가 많이 된 쪽에 중점을 둔다」는 棋理대로 상변을 귀중하게 여겨야 했다.

다시말하여 白은 2로 귀를 파들어가지않고 「가」에 먼저 지키고 黑이 「나」로 지킨다면 「다」로 계속 확장해가야 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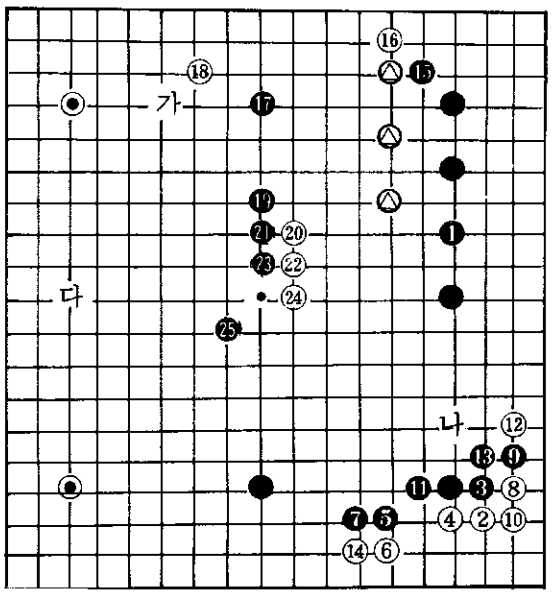
右下귀에서 후수를 잡고 17을 당하자 白△석점의 勢가 놓여 곧바로 변했다. 그리하여 25까지 白은 고단하고 黑은 돌들이 살아 중앙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실전 하이라이트

◇세계바둑 정상대결 3번기 제2국

白9段 曺薰鉉·黑9段 武宮正樹

〈黑3집반 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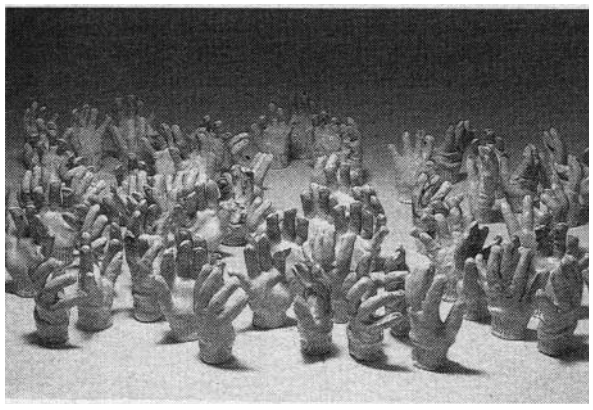


놀의 흐름에 누구보다 민감한 曺9단이 이런 빗나간 흐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韓國棋院의 프로기사들은 불가사의로 여긴다. 실적부담 때문이었다고 말하지만 큰승부를 헤쳐온 曺9단이 이번만 부담이 컸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白20, 22, 24는 발전성이 없고 黑21, 23, 25는 발전성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曺9단같은 고수가 왜 외면했을까.

朴東奎의 문화가 산책

지난 3월16·17일양일간 펼쳐진「컨템포러리90」이라는 현대무용은 현대무용의 한국적 위상을 생각하게 하는 발표회였다.

이땅에 무용이라고하면 언제나 인체를 통해 아름다움만을 표현해내는 것으로 인식해 오던 60년대의 관념을 벗어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무용화할 수 있다는 새차원의 시도를 현대무용의 양식으로 끌어올린 것이 이 컨템포러리 무용단인데 이들은 무용을 통해 고뇌와 연민, 저항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부딪칠 수 있는 것들과의 조우를 무용의 양식에담으려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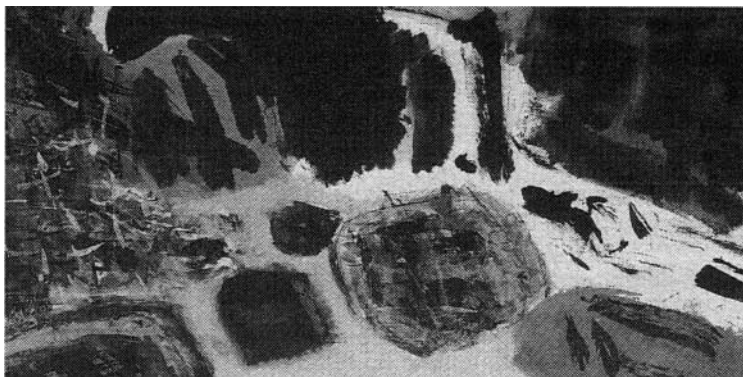
▲Untitled Installation. CERAMIC. 1987

鄭璟娟展…장갑의 표정에 共感

이번에 발표된 안은미의「꿈에도 젖지않는 그 어두움…」은 시의 영상적 해석을 통하여 무엇이 삶의 그늘에 깔려있는가를 보여주었고, 안신희의「다시 아름다운 시선으로」는 조각조각 타오르는 아름다움의 질서를 그려보였으며 김원의「빈 려는 거부의 바탕에 깔려진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시회중 우리의 관심을 끈것은 다름아닌 손의 의미를 추적하여 인간의 내재적 실체를 밝히려고한「정경연전」이다.

장갑의 수없는 표정을 통해서 인간이 손을 빌어 말하는 수화의 세계를 그려낸다는 것은 특이한 안목이면서 장갑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가슴에 닿는 기쁨을 보는이에게 주고 있는 점은 이 전시회가 지니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

〈母校人文大교수〉



金浩得〈75년 美大卒〉·계곡Ⅱ 135×70㎝ 1989.

◇이인화랑 개관기념展◇

계곡이라면 엄청 스케일이 큰 풍경이 연상되거나 일반적인 산수화에서 보여주는 산자락 끝의 작은 물줄기를 그려내기가 십상이다. 하지만 나는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분, 바위 몇덩이 물줄기 몇가닥만으로 계곡의 참맛을 확대해서 그린다. 그것은 바위라는 물체와 물의 흐름을 제삼자적 입장에서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속에 뛰어 들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公演

▲예음클럽 4월연주회

— 4월 11일 예음홀 —

매월 다양한 레퍼터리를 선보이고 있는 실내악그룹 예음클럽의 이번 연주회는 19C 독일 낭만파음악 창시자중의 한사람이며 「가곡의 왕」이라 일컫는 슈베르트의 작품으로 현악 4중주와 기타 4중주 그리고 성악과 목관, 피아노가 함께 하는「바위위의 목동」이 무대에 오른다.

프로그램 : 바위위의 목동 D.965, 기타 4중주 G장조 D.96(플루트·비올라·첼로·기타), 죽음과 소녀 현악 4중주 d단조, D.810.

▲서울컨템퍼러리앙상블연주회

절묘한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는「同時代人」이라는 의미로 'Contemporary'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모교 동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 정선기(77년·피아노) 송경화(플루트) 목완수(77년·오보) 정운대(78년·클라리넷) 신현길(77년·바순) 최선용(80년·혼) 등 음악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든 이들의 이번 공연에서는 모짜르트·F폴랑 등 주옥같은 실내악 레퍼터리가 선보인다.

— 4월 18일 호암아트홀

▲콜레지움 무지쿰 서울

— 5월 1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이명진(85년·오보) 김영미(85년·플루트) 이강옥(71년·첼발로) 김소혜(객원·첼로) 등 모교음대 동문들로 구성된 이팀은 주로 중세음악을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 연주해 음악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중 이강옥은 우리나라 첼발로음악의 선두주자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첼발로의 보급과 연주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그의 연주가 기대된다. 이번 연주회는 엘리아스·아서 호네거·바흐·비발디 등 주옥같은 레퍼터리로 이어진다.

▲이소연 피아노독주회

— 4월 12일 예음홀 —

◇이소연

1946년 창설된「국제청소년음악연맹」(FIJM)은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보다 밝은 세상을 만들수있는 꿈과 용기를 주고 화합을 이루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 한국청소년음악연맹(JM)은「청소년데뷔시리즈」를 시행하고 있다. 모교음대를 올봄 졸업한이소연은 그간 釜山音協·한국일보콩쿠르 그리고 음악춘추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한바 있다. 현재 모교 이경숙교수를 거쳐 정진우교수께 사사하고 있다.

프로그램 : 모짜르트소나타 K.333, 쇼팽스케르쪼 op.31, 슈베르트 방랑자환상곡 op.15 등.

▲서울 컨템퍼러리 앙상블

新刊

▲北韓음악의 실상과 허상

—韓相宇著(62년 音大卒·서울예고 음악과장)

우리민족이 분단의 비극을 맞은지 근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남과 북이 여러가지 면에서 이질적인 성향을 극명화해가는 시점에서 북한의 음악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그들은 소위 음악예술을 어떤 부문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도는 가히 뜻있는 일일 것이다. 이책은 그간 음악평론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온 韓동문이『북한음악의 실상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통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접근방법이라 생각되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책은 북한주민들의 정서적 감정과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적 표출이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듯이 북한문화의「감정적 접근」을 위한 입문서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신원문화사刊·값 3천 5백원—

▲在日本韓國人 ; 왜 日本이름을 쓰고 살아야 하나

—閔寬植著(40년 高農卒·대한체육회 명예회장)

일제시대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한국인 1세와 그 후세대들이 '在日'이라는 현실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자기동일성을 되찾고, 투철한 민족의식을 지닌체 일본땅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를 저자의 각고의 노력끝에 세상에 알리게된 저서. 저자는 이책에서 재일한국인의 교육·사회·의식·경제·조국관·미래에 관한 문제들을 면밀한 고찰을 통해 규명하고 이러한 제반 문제가 지니고 있는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조명하고 있다.

—아시아정책연구원 10,000원—

▲변혁시대의 사회철학

—金泰吉著(47년 文理大卒·母校교수)

올해 古稀를 맞은 원로 철학자 金泰吉교수의 이번 저서는 金교수 자신이「변혁시대」라고 표현한 이시대를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고민해온 것을 철학적 탐구의 형식속에 농축시킨 문헌이다. 특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차원을 넘어서 종합적이면서 포괄적인 독자적「사회철학」의 체계적 정립을 시도한 점이 주목된다.

—철학과현실사刊 6,000원—

母校소식

新入生 18% 과외경험

학생생활硏 조사

올해 신입생중 18.5%(예체능교습 제외)가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고 남녀 비율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과외교습비율이 특히 더 높다는 사실이 학생생활연구소(소장:元鎬澤교수)의 신입생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단과대별로는 가정대(25.2%), 미대(40.7%) 그리고 음대(44.4%) 신입생들의 과외교습비율이 특히 높았다.

「發展事業財團」 설립 추진

學父母 同門 企業体에 협조 書翰

모교는 발전장기계획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발전사업재단」을 설립키로 결정하고 일차로 신입생 학부모에게 서한을 보내 적극 협조를 구하였다.

이 서한에서 趙完圭총장은 國庫재원과 학생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모교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설명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문 학부모 기업등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모교가 높은 수준의 대학교육과 연구를 수행하여 세계속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는 물론 연구실험시설과 도서및 연구자료, 국제학술교류및 정보교환, 연구비의 확보, 학생의 후생과 장학금을 위한 기금조하고, 학부모와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그밖에 모교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의 협력을 얻어 「서울대학교발전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湖巖生活館 준공

三星서 기증 教職員住居用 등으로 활용

교직원의 회의 집필후원, 鄭元植문교부장관, 그리고 시설을 기증한 삼성그룹의 李健熙회장과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준공식에서 趙총장은 李健熙삼성그룹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대지면적 8천8백78㎡에 총 공사비 40억원이 투입된 호암생활관은 모교 발전장기계획의 추진에 참여해온 삼성그룹록에서 후생복지시설을 건립 기증할 의사를 표명하여 그간 1년여에 걸쳐 기초적인 검토와 설계·건축등의 공정을 거쳐 완공된 것이다.

호암생활관은 △東館—교수·초빙교수 아파트 18평형 30세대와 9평형 10세대 △西館—직원아파트 9평형 30세대, 외래손님 등 일시 체류자를 위한 숙박시설 9평형 40세대와 8평형 30세대 △호암생활관 내의 국제회의실과 식당 수퍼마켓 세탁소 이·미용실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図書館 독립기관승격

모교 기획위원회(위원장 金榮國부총장)는 지난 3월12일 현재 교내 부속시설로 규정돼 있는 도서관을 단과대학과 동격인 독립기관으로 승격시키고 규장각을 도서관에서 분리, 부속시설로 격상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大설치령 개정안」을 확정해 문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教授 10명 停年퇴임

모교교수 열분이 지난 2월28일자로 정년퇴임했다. 퇴임식은 각대학에 위임되어 열렸으며, 포상및 공로패증정·기념품전달은 28일 오전11시30분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있은 송별오찬 자리에서 있었다.

이번에 정년퇴임한 교수는 다음과 같다.

△愼鑾晟교수(인문대 언어학과) △金正洙교수(자연대 수학과) △朴乙龍교수(자연대 수학과) △尹張燮교수(공대 건축학과) △朴昺鎬교수(공대 전기공학과) △崔桂根교수(공대 전자공학과) △崔雄교수(공대 화학공학과) △韓基彦교수(사대 교육학과) △李誠載교수(음대 작곡과) △沈輔星교수(의대 의학과)。

〈인터뷰10面〉

모친喪조의금 — 私財모아 장학금

趙完圭 총장, 法大에 6千만원

趙完圭 모교총장(52 文理大卒)이 지난해 작고한 어머니 權寧一여사에 대한 조의금과 사재를 털어 최근 모교 법대에 학술장학금 6천만원을 내놓았다.

趙총장은 『당초 현직 총장이라는 위치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91년8월이후 기금을 전달할 생각이었으나 모친상을 치른뒤 형제들과 조의금 처리문제를 의논한 끝에 선친의 유지를받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대측은 아직 이장학금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결정하지 못했으나 전국의 법대 4학년학생과 법과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법률논문賞」을 제정, 시상할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趙총장은 『우리 사회가 바르게 되려면 우수인재들이 법조계에 많이 있어야 한다』는 선친 趙容淳전대법원장(22년 法大卒·75년 작고)의 평소 지론에 따라 법대에 장학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學術交流의 신기원 열어

美 남가주大와 人工衛星 강의

모교는 국내 대학중 최초로 美國 남가주대(UCLA)와 인공위성을 통한 영상, 음성동시강좌를 4월부터 개시함으로써 국제학술교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금년도 전산화된 시청각기자재와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해 태평양을 잇는 원격동시강의 및 회의를 가능케 한 이번 통신교류는 국제학계상으로도 최초의 시도이며, 직접적인 인적자원 교류에 따르는 비용·시간의 절감,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친 교류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87년이래 모교가 매년 봄 20명씩의 UCLA大 한국어·한국학 수강생들의 현지수강을 맡아오던중 88년 겨울 UCLA大 응용언어학과의 캠틀교수가 방학중 직접적 인적교류의 번거로움을 지적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된 이번계획은 지난해 5월 趙完圭총장의 방미중 기자회견으로 공식화됐다.

이후 양교 실무자간 접촉을 통해 계획의 개요가 마련됐으며, 모교에서는 12월부터 이에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OPTEL사로부터 들여와 설치중이다.

계획 초기단계(90년 1월~93년7월) 첫해인 올해에는 시험방송교류 이후 4월23일부터 6월8일까지 총32시간의 강의가 실시되는데 모교에서는 한국어및 한국학 관계강좌를 UCLA측에서는 응용 및 이론 언어학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한국어와 영어 반 반응로 고급회화 강좌를 개설할 계획인데 어학연구소측에 따르면 일차로 고급영작문과 언어학관련강좌등 4개강좌 수강생들에게 통신강의 기회를 부여할것이며 수년내 어학연구소 규모를 확장·신속해 본교생과 일반인에게도 이용케할 계획이라고 한다.

7주간 이같은 통신방송교류가 끝나면 8월에 프로그램 내용을 평가·검토해 교류 규모및 타분야로의 확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계획에 쓰이는 시스템은 15초 간격으로 화면을 전송하는 전자판·비디오프린터·PC등을 사용해 현장감있는 강의를 가능케 하며, 앞으로 기자재와 국제전화선만 확보하면 어느곳이나 직접 교류할수 있어 이번 시험교류에 쏟리는 관심이 그만큼 크다.

당초 모교에서는 이와같은 국제통신교류를 위해 북경대와 논의한 바 있었으나 천안문사태로 인해 무산됐다고 하며, 현재 영국·프랑스 당국과 독일의 보쿰대및 미국의 타대에서도 관심을 표명해오고 있어 이번 교류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을 경우, 앞으로 한국학분야의 세계적 확대 및 국제학계간 학술교류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